

제2장

국내 패널조사의 현황 분석

이 희 길

제1절 서론

1. 연구배경

우리나라에 패널조사가 최초로 도입된 것은 1993년 대우경제연구소에서 시작한 일명 ‘대우패널’, 즉 한국가구패널조사(KHPS: Korea Household Panel Study)를 통해서였다. 민간 영역에서 먼저 도입된 KHPS가 IMF 시기를 맞아 중단되면서¹⁾, 이를 이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1998년 한국노동패널을 운영하면서 최초로 공적 영역에서 패널조사가 도입되었다(남재량 외, 2007). 대우패널의 경험을 이어받은 한국노동패널이 성공적인 결과를 보이자 2000년 이후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공단을 중심으로 패널조사가 급속히 확산되었다. 2007년 현재 정부예산을 사용하여 중앙정부부처, 국책연구기관 및 공단 등에서 운영 중이거나 계획 확정된 패널조사만 17개에 달한다. 지금도 여러 정부 부처나 정부출연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사회적 정책 이슈에 걸쳐 신규 패널사업을 시도하고 있어, 앞으로도 패널조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에는 민간영역의 각종 선거여론조사에서도 유권자 패널을 구축하여, 유권자의

1) 대우패널(KHPS)은 1998년 7차 웨이브(wave)를 끝으로 중단되었다. 대우패널의 운영 경험에 기초해서 구축된 패널이 한국노동패널이다.

지지정당 및 후보 지지도의 변화를 추적하는 조사설계가 이루어지기도 하고(김장수, 2007), 특히 인터넷 온라인 조사에서도 응답자 풀(pool) 구축을 통한 특정 집단 패널조사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10년 동안 공적인 영역에서 패널조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여러가지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종단연구 설계인 패널조사의 특성상 장기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 연구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만큼, 조사설계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사전검토와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최초 연구설계가 잘못되면 중간에 변경하기 어렵고, 많은 비용이 투입된 상태에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지난 10년 동안 국내 패널조사의 확산추세는 사회적 우려를 낳을 소지가 충분하다. 개별 패널에 대해, 종단조사로 설계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상응하는 연구결과를 산출하고 있는지, 자료 생산에 투입되는 비용 대비 자료의 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짧은 시간 동안 비슷한 시점에 패널조사를 여러 기관에서 시작한 만큼 유사·중복조사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패널조사가 당시 사회의 주요한 정책적 이슈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아, 조사내용에서 중복되는 패널조사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사정을 반영하듯, 최근 패널조사 현황과약을 위한 패널조사 운영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가장 많은 패널운영과 관계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는 소속 정부출연연구소 운영 패널의 현황과약 및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고²⁾, 국회나 국무조정실 등에서 패널조사에 대한 자료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기 국가 통계시스템 개혁방안(2006~10년)에 ‘패널조사 발전방안’이 포함된 것도 이런 맥락의 연장선상으로 이해된다. 간단히 말해, 국내의 공적인 기관에서 운영하거나 운영계획이 확정된 패널조사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패널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이 지난 10년 동안 급속히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는 7개 연구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11개 패널조사에 대해 2007년에 「정부출연연구기관 패널사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팽창해 온 패널조사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2. 연구목적 및 내용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국내의 패널조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기술함으로써, 향후 국내 패널조사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즉, 패널조사 현황파악에 기반해서 바람직한 국내 패널조사의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첫째, 조사대상 국내 패널의 목록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 현재, 여러 가지 성격의 공적 기관에서 동시에 패널조사를 운영하고 있어 정확한 패널조사 목록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연구대상 패널조사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본 연구의 우선적인 해결과제이다.

둘째, 개별 패널조사가 본래의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운영기관, 인력현황, 예산, 조사목적, 조사시기 및 운영기간, 표본추출, 패널유지, 현장조사, 조사결과물 활용 등 전체 조사과정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연구대상 개별 패널이 패널조사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는가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바람직한 패널조사에서 준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의 국내외 문헌검토를 통해 패널조사의 실태파악과 평가를 위해 파악되어야 할 내용의 분석틀을 마련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체 패널조사 차원의 분석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패널조사간 유사중복 여부, 패널조사 진행에 따른 국가통계에 대한 기여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패널조사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제2절 현황파악을 위한 분석틀 구성

패널조사 현황을 파악하기 전에 패널조사의 정의 및 장단점 등에 대하여 먼저 개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패널조사 설계는 어떻게 하

는 것이며 다른 조사설계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나아가 패널조사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 다음, 패널조사의 현황과약을 위해 조사되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외부 통계 품질진단에서 통계청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을 검토할 것이다. 동시에 다른 조사와 변별되어 파악되어야 하는 패널조사 특성을 제시할 것이다. 이런 작업을 통해, 패널조사 현황을 위해 파악되어야 할 내용을 도출, 즉 본 연구의 조사내용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1. 패널조사에 대한 개관

가. 패널조사의 정의

패널조사(panel survey)는 주어진 한 표본의 조사 단위를 시간을 두고 반복 추적하는 조사이다. 따라서, 그 표본이 포함하는 개개 단위에 대해 복수의 관찰 결과를 제공한다(Hsiao, 2003). 종단조사로도 불리는 패널조사는 조사대상이 개인, 가구, 사업체 등이 될 수 있고 이들 조사단위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조사설계이다.

통계학이나 계량경제학에서는 이런 패널자료에 대해 이차원 자료(two-dimensional data)라 일컫는다(Hsiao, 2005). 대체로 데이터는 차원의 수에 따라 분류되는데, 단일 현상에 대해 복수의 시점에서 관찰을 한 자료가 시계열(time series)로 일컬어진다. 시계열자료에서는 자료의 값(values)과 순서(ordering)가 모두 의미를 가진다. 반면에 단일시점에서 복수의 현상에 대한 관찰을 포함하는 자료는 횡단면(cross-sectional)이라 한다. 횡단면자료에서 자료의 값은 의미를 지니지만 자료의 순서는 그렇지 않다. 이와는 달리 복수의 현상에 대해 복수의 시점에서 관찰을 포함하는 자료가 패널자료이다. 예를 들면, 형제나 가족과 같은 동일 표본 집단에 대해 여러 시점의 관찰을 통해 얻은 자료가 패널자료이다. 시계열이나 횡단면자료는 일차원만을 가지지만, 패널자료는 이차원 자료이다(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나. 패널조사의 장단점

실증적 통계분석에 기초해서 정책 수립 및 그 효과를 측정하고자 하는 정책입안자나 연구자들은 패널조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다른 조사설계에 비해 패널조사가 갖는 장점에 기인한다. 앞에서 지적한 개인간 차이와 개인 내에서 동향 정보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패널조사는 횡단조사나 시계열자료에 비하여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다 (Hsiao, 2005).

첫째, 모델 모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다. 패널조사는 단일시점에서 조사한 횡단자료에 비해 자유도가 높다. 그리고 시계열자료의 경우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패널자료는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진다.

보다 중요한 패널조사의 두번째 장점으로, 단일한 종단 혹은 시계열 자료에 비해 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하면 인간행동의 복잡성을 포착해낼 수 있다. 먼저, 보다 복잡한 행동적 가설을 검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패널자료는 사회정책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횡단자료를 이용해서 특정 프로그램 효과성을 검증하는 경우, 프로그램의 처치를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본래 상이하다는 사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패널자료를 이용할 경우 동일한 개인에 대해 처치 전후의 효과를 비교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시행한 “삼진아웃 법”을 예로 들어 보자. “삼진아웃 법”은 만약 용의자가 세 번의 범죄를 저지르면, 평생 동안 감옥에 갇히도록 명시하였다. 이러한 법이 범죄를 단절시키는 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법이 시행된 이후 캘리포니아 주의 범죄율을 비교해 보면 된다. 이를 y_{it} 라고 하고, 같은 기간 동안 “삼진아웃 법”이 없는 다른 주, 즉 오리건 주의 범죄율을 y_{jt} 라고 할 때, 이들을 비교하는 것은 틀린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서로 매우 다른 두 주에서 범죄율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단순히 캘리포니아에서 법이 개시되기 이전의 범죄율, 즉 y_{is} 와 이후의 범죄율을 비교하는 것도 틀린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시행 이전과 이후에 기후와 인구통계가 같더라도 실업률과 같은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만약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이러한 요인들이 캘리포니아와 오리건에서 유사한 형태로 변동한다면, 두 주 각각 시행 이전과 이후의 범죄율 차이, 즉 $[(y_{it} - y_{is}) - (y_{jt} - y_{js})]$ 는 범죄율에 미치는 다른 요인들의 효과를 제거한 “삼진아웃 법”의 효과를 분리해낼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차이 차(difference in difference)’ 기법은 단지 패널자료에서만 가능하다(Hsiao, 2005). 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을 통제할 상태에서 처치 효과만을 분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비관찰 혹은 생략된 변수의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패널자료는 시점간 동태 정보와 전체에서 개별에 대한 정태 정보를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측정되지 않는 변수의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미관측 변인의 효과를 통제함으로써, 보다 엄밀한 자연과학의 실험과 유사한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변수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책평가나 엄격한 인과적 관계 규명이 필요한 경우 자연과학의 실험연구와 가장 유사한 패널조사 설계를 선호하는 것이다.

패널의 역사가 오래된 외국에서는 이와 같은 패널자료가 가지는 특성 혹은 장점으로 인해, 정부정책의 주요 방향을 결정하는 데 패널자료가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독일의 가구패널조사(GSEP: German Socio-Economic Panel Study)나 영국의 가구패널조사(BHPS: British Household Panel Study)는 소득, 노동시장, 가족 등 다양한 현상에 걸쳐 그 동태적 변화를 분석하여 정책형성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이삼식 외, 2006: 40). 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한 연구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Hsiao, 2005). 1986년에 사회과학 인용색인(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에서 “패널 혹은 종단자료” 색인어로 29개 연구목적이 있었으나, 2004년에는 687개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이와 같은 패널자료를 이용한 연구의 기하급수적 증가는, 첫째 자료의 이용가능성이 증가하고, 둘째 시계열자료나 횡단자료에 비해 인간행동의 복잡성을 포착하는 데 패널자료가 유용하며, 셋째로 방법론적인 도전의 결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복잡한 인간행동의 인과관계 규명과 관련해서 패널자료의 장점에 대해 국내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패널자료는 경제현상 분석, 정책의 효과성, 노동시장 분석 등을 가능하게 하며, 또

한 특정 기간의 효과(period specific effect), 특정 연령효과(age specific effect), 그리고 동시태생의 효과(cohort effect) 파악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지적하였다(김재호, 1998a). 유사하게 패널자료는 미관측 이질성을 통제함으로써 시간의 경과나 환경의 변화에 따른 동태적 변화 및 상태간 변이과정을 추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찰 불가능한 변수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엄격한 조건에서 특정 변수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신동균, 1998; 이상호, 2006).

패널조사가 지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패널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도 현실적인 제약 때문이다. 우선, 패널조사는 동일 대상을 반복해서 조사해야 하는 까닭에 패널유지를 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횡단조사 설계에서는 표본을 선정한 다음에 한 번의 조사로 그치기 때문에 별도의 추적비용이나 패널 관리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 또한 시간에 있어서도 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료축적이 필요하다. 즉, 관심 있는 현상에 대한 의미있는 분석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이 패널조사의 계획과 관리가 어려운 이유는 장기적으로 설정된 목표나 수요에 비해 단기간에 동원 가능한 자원들 사이에 항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사 초기부터 장기적인 목표와 자원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진행하지 않으면 패널조사는 지속되기 어렵다(이지연, 2005).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설계와 자료수집이 이루어지는 만큼, 조사설계가 한번 결정되면 변경하기 어렵다. 표본추출, 설문구성 등의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많은 노력과 비용이 투입되므로,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장기 반복조사의 특성으로 인해 연구 예산 및 연구 인력의 안정적 운영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다른 조사설계에서는 그렇지 않으나 유독 패널조사에서 부각되는 문제점의 하나는 패널 탈락(panel attrition) 문제이다. 차수(wave)가 반복될수록 1차년도 원표본에 대해 계속 조사를 하기가 어렵다. 회상에 의존하는 횡단조사에 비해 기억오차는 감소하지만, 패널 탈락에 의해 문제가 야기된다. 특히, 표본 탈락이 비체계적으로 발생한 경우 남아 있는 패널의 대표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신동균, 1998; 이지연, 2005).

다. 패널조사의 유형

패널조사는 조사단위, 조사의 범위, 운영 패널의 수, 패널 유지기간 등에 따라 다양하게 그 유형을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대표적인 패널조사 구분방법은 조사단위에 따른 구분으로 개인패널, 가구패널, 사업체패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가구패널의 경우, 조사대상 가구원 개인에 대해서도 패널화하여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패널의 특성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둘째, 조사의 범위에 따라 패널조사의 유형은 크게 일반형과 특수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형’ 패널조사는 전국민을 모집단으로 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전반적으로 설문하는 조사로서 우리나라의 대우패널, 미국의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독일의 GSEP, 영국의 BHPS 등을 들 수 있다(국민금융연구원, 1997). 특수패널은 특정 연령대나 특정 주제를 다루는 패널로 일반패널에 비해 세밀한 연구를 수행하는 패널이다. 또한 표본프레임에 따라서는 전국단위 센서스, 학생집단, 특정지역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고, 표본을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모집단 특성을 반영한 대표 패널(representative panel)과 출생시기와 같은 세대가 표본추출의 기준이 되는 코호트 패널(cohort panel)이 있다. 셋째로, 동일한 패널조사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패널의 수에 따라 단일패널과 복수패널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코호트 패널의 경우에 복수의 패널을 순차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마지막으로 패널 유지기간의 한정 여부에 따라, 기간 한정이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와 종료시점을 정해 놓고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2. 패널조사 현황과약을 위한 조사내용

국내 패널조사 현황과약 및 분석을 위해, 통계조사로서 타당한 절차를 밟아 진행되었는가를 통계청 외부 품질진단 항목을 중심으로 먼저 살펴볼 것이다. 통계청 품질진단의 경우 횡단조사 중심의 진단체계를 가지고 있어 종단조사로서 패널조사가 갖는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패널조사 특성상의 중요 쟁점을 검토하고, 추가적

으로 필요한 규칙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일반 조사의 과제에 더해 패널조사와 관련해서 단계별 주요한 쟁점들을 정리하여 현황과약을 위한 조사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통계청 외부통계 품질진단 내용

외부 일반 통계조사에 대해 통계청은 6개 영역 22개 항목에 걸쳐 조사기획, 조사설계, 현장조사, 자료처리 및 활용 등 통계 생산과정 및 이용 전반에 걸쳐 품질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표 2-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작성 기획 및 관리에서는 작성목적, 기준타당성, 여건검토, 이용자 요구반영, 문서화 등 8개 세부 영역에 대해 품질진단을 실시한다. 예를 들면, 표본 설계에 대해서도 모집단 정의, 표본관리 및 유지, 표본규모, 표본오차, 표본추출과정이 진단항목에 포함된다. 조사표 설계와 관련하여도 조사표 이해 및 작성 용이성, 조사지침서 작성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현장조사에 대해서는 조사원 교육 및 업무전문성, 현장조사 진행에 대한 파악, 현장조사 관리 체계 및 의문사항 처리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다른 세부적인 내용은 <표 2-1>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이와 같은 통계청의 품질진단 방법은 일반 통계조사의 품질진단을 위한 것으로, 패널조사의 현황과약에도 유용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나. 패널조사의 추가 쟁점

1) 조사개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패널조사는 정부부처의 정책수립 및 정책효과 검증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개별 패널들이 우리 사회의 어떤 정책이슈와 관련이 있는가와 정부 관련부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종단조사인 만큼 조사연역을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른 조사설계에 비해 장기적으로 운영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조사준비 과정이 철저해야 한다. 따라서 조사계획, 예비조사, 본조사 과정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되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물론 조

〈표 2-1〉 통계품질진단 항목

영역	항목 내용	항목수
통계작성 기획 및 관리	통계 작성목적 제시(목적, 필요성, 활용분야), 통계작성 기준의 타당성 검토(개념, 용어, 분류, 작성방법), 예산·인력·일정 등 여건 검토, 이용자 요구 반영, 개편작업의 시의성, 개편내용 이용자 공개, 외부자료 이용시 타당성 검토, 문서화	8개
모집단 및 표본설계	대상모집단 명확한 정의, 적절한 표본관리 및 유지, 표본규모의 적절성, 표본오차 관련 지표 작성, 표본추출과정 공개	5개
조사표 설계	항목변경시 사전조사 실시, 조사표의 이해 및 작성 용이성, 조사지침서 작성	3개
현장조사 관리	조사직원에 대한 체계적 교육, 조사직원의 업무관련 전문성, 조사기획자의 조사직원의 현장조사 방법 파악, 현장조사 단계별 업무량 파악, 현장조사 체계적인 관리, 현장조사 의문사항 처리 적절성	6개
자료처리 및 집계	무응답 실태 파악 및 분석, 적절한 내용검토, 모수 추정 절차의 적절성, 관련 자료 및 유사통계자료 비교분석 실시	4개
자료이용	간행물 수록 자료에 대한 오류점검, 이용자 편의를 위한 통계조사 관련 자료 수록여부, 결과자료 적정시점 공표, 승인 항목 모두 공표여부, 이용자 동시 이용가능토록 공표여부, 결과 공표일 사전예고	6개

사차수(wave)도 포함될 것이다. 또한, 패널조사의 안정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내용 및 조사대상 개편 여부, 연구자 변경 등이 있는지도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추가로, 통계청의 통계승인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 정부출연연구소, 정부부처, 공단에서 패널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통계청의 승인 통계인지 여부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 자료는 향후 전체 패널조사 조정과 관련해서 유용한 정보를 줄 것이다.

2) 조사내용

일반적으로 패널조사의 조사내용은 차수 공동 핵심 내용과 특별 내

용으로 구성된다. 차수 공동 조사내용은 해당 패널의 핵심적 관심사를 반영하고, 특별 조사는 부가적인 관심을 반영한다³⁾. 그리고 패널조사는 다양한 응답자를 동시에 조사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학생 패널의 경우, 교사, 학부모, 학생에 대해 동시에 조사하는 경우가 있어 각각의 응답자별 조사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3) 표본추출 및 유지

다른 연구설계와 변별되는 패널조사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동일 조사대상(panel)을 추적하여 반복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동일한 조사대상인 패널의 유지율이 패널조사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각되며, 이는 패널조사의 대표성과 관련된다. 추적불가나 응답거부로 패널 탈락(panel attrition)이 발생하게 되면 표본의 대표성이 손상되기 때문이다. 표본의 대표성은 복수연도의 횡단면 자료들이 동시에 대표성을 유지해야만 확보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1차년도에 임의로 추출한 패널의 100%가 응답하고, 둘째, 시간의 경과에 따라 패널이 계속 응답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항목무응답이 발생하게 되면 분석과정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1차 조사 응답률이 매우 중요하다. 패널조사는 조사 차수(wave)가 진행될수록 패널 탈락으로 인해 대표성의 문제가 부각되는데, 1차년도에 조사된 원표본(original samples)이 이후 표본 대표성 유지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1차년도 조사에서 무응답자는 그 특성을 알 수가 없어, 가중치 부여에도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와 관련 1차년도 무응답자에 대해 어떻게 대체했는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패널조사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원표본 대비 2차년도 이후 패널유지율(panel maintenance)이다. 외국 패널조사의 경우 2차 조사에서 비교적 높은 탈락률을 보이지만 세 번째 조사부터는 안정화되는 경향을

3) 패널조사는 특수 주제에 대한 설문을 보완하기 위해 핵심(core) 질문, 순환(rotating) 질문, 가변 질문 등을 구분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핵심질문은 매 조사에서 반복되는 중심적인 질문으로서 조사의 목적인 '변화'를 연구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순환 질문은 일정한 순환 주기마다 조사하는 것으로, 시간에 걸친 변화가 크지 않아 매번 조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주제이다. 마지막으로 가변 질문은 한번만 질문하면 되는 주제이다.

보여준다(강석훈, 2001). 패널 탈락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패널조사 설계의 의미가 상실된다. 표본유지율과 함께 중요한 개념이 항상응답률(always in)이다. 이 개념은 실제 분석과정에서 표본유지율보다 중요한데, ‘전체 차수 모두 응답한 사례(always in)’를 가리키는 것으로 원표본에서 ‘한 번이라도 응답하지 않은 사례(never out)’의 비율과 반대 개념이다. 그리고 표본탈락 사유 및 대안에 대해서도 알아보아야 한다. 표본탈락은 추적불가와 응답거부가 주를 이루는데, 그 사유와 이탈자 특성을 알아보고 표본유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도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추적원칙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무응답자를 다음 조사에 포함시키는지 여부와 가구단위 조사에서 분가 가구에 대한 추적 여부 등을 파악해야 한다. 가구조사인 미국의 PSID나 영국의 BHPS는 표본유지를 위해 원표본 가구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독일의 GSEP나 캐나다의 SLID(Survey of Labor and Income Dynamics)는 가구구성원 모두에 대해 추적한다(이상호, 2006).

표본탈락으로 인해 표본의 대표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면, 외국의 경우 표본추가 혹은 개편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특정 집단의 심층조사나 표본유지율이 낮을 경우 표본을 추가하는 경우인데⁴⁾, 표본개편 경험 여부도 부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4) 현장조사 과정

동일 조사대상을 반복적으로 추적하는 조사설계의 특성으로 인해, 횡단조사나 횡단면 반복조사에 비해 패널조사는 복잡한 현장조사 과정이 수반된다. 해외의 경우를 보면, 미국 PSID는 자체 연구기관에서 현장 조사를 직접 진행하고, 캐나다 SLID는 통계청 지역사무소를 통해 실시하는 반면, 독일의 GSEP와 영국의 BHPS는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이상호, 2006).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패널연구 담당기관에서 직접 현장조사를 진행하는지 혹은 민간업체를 이용하는지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세부적으로 조사원 교육, 현장조사 감독,

4) PSID의 경우 미국의 노동시장이 이민에 의해 노동력 구성에 변동이 발생하여, 1차년도에 과소표집된 라틴계보완과 표본 대표성을 위해 1990년에 2,043가구를 추가로 표집하였다(신동균, 1998).

자료입력, 데이터클리닝 등 일련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연구기관과 전문 실사기관의 역할분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조사할 것이다. 그리고 자료수집 방법과 관련해서, 해외의 경우 대인면접(PAPI)에서 CAPI, CATI 등 다양한 자료수집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인면접 외에 컴퓨터의 도움을 받는 인터뷰 방법(CAPI) 도입이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어떤 자료수집 방법이 활용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패널조사에서는 패널인 응답자의 지속적 유지 및 관리가 조사의 성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즉, 표본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표본탈락을 최소화하는 응답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해외 주요 패널의 경우 주기적인 연락, 응답자와 면접원 관계유지, 이사시를 대비한 친구 및 친척 연락처 확보, 소식지 제공 등 다양한 노력이 경주된다. PSID는 인터뷰 비용, 이사 정보제공시 비용지불, 자료활용 팸플릿 제공, 응답거부 책임자 서명 편지 우송, 이사시 주소파악을 위한 친구 및 친척 파악, 연구책임자의 면접원 애로사항 청취, 동일 면접원이 동일 조사대상자 면접지원, 반송 우편물 봉투 사용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된다(김재호, 1998b). 우리의 경우 소식지 제공, 정기적 전화연락, 동료 및 친인척 연락처 파악, 이사시 주소 파악, 면접원 수기 제공, 조사분석결과 제공과 함께 응답자 답례품 제공 및 비용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5) 자료입력 및 처리

해외의 경우 자료입력 및 에디팅과 관련해서 전문 에디팅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프로그램 사용여부와 활용 프로그램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데이터클리닝 방법도 알아볼 것이다. 패널자료의 경우 가중값(weight) 부여시 횡단면 가중값과 함께 종단면 가중값을 동시에 부여하는데, 우리의 경우 가중값 부여방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자료처리 과정에서 오차측정과 관련해서 표본오차, 표준오차, 변동계수, 신뢰수준 측정여부도 파악할 것이다.

6) 문서화

종단조사로서 패널조사를 진행하는 과정 전반에 걸쳐 많은 문서들이

생산되고 관리된다. 이러한 문서화 과정을 통해 조사 과정 전체를 기록함으로써, 반복되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 중요한 문서로는 예비조사 보고서, 현장조사 계획서, 면접원 매뉴얼, 실사보고서, 내용검토(데이터 클리닝) 보고서, 오차측정보고서, 표본관리보고서 등이 있다. 이들 문서들을 체계적으로 생산, 관리하고 있는지와 함께, 우리의 경우 현장조사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생산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7) 자료이용

외국의 경우 패널조사와 관련된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으나, 우리의 경우 일반예산과 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공공펀드에 의해 생산된 자료의 경우, 공공재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은 연구자와 정책입안자에게 자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강석훈, 2001). 각각의 패널조사 운영기관에서 원시자료를 제공하는 방법과 비용청구 여부도 파악하고자 한다.

정부예산에 의해 운영되는 패널조사는 일반적으로 조사설계 및 진행 단계에서 자료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이용자 요구에 기초한 자료생산을 통해 자료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패널 연구 운영기관에서 이용자 요구반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산된 자료를 활용해서 산출된 연구결과도 동시에 조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패널조사의 경우 여러 차수에 걸쳐 진행된 종단 분석을 통해 논문을 작성하고, 정부정책과 관련된 유의한 정보를 산출해야 한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 작성논문, 종단분석 논문수 및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친 사례를 조사표에 포함시킬 것이다.

8) 인력 및 예산

장기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이 수반되는 패널조사가 본래의 연구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력 및 예산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잦은 연구인력 교체나 예산의 변동은 데이터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이와 관련, 패널연구팀의 인력현황은 연구 인력수, 학위, 연구 참여도, 정규직 여부, 패널조사 연구

경력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책임자 교체 경험도 동시에 파악할 것이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의 총액과 함께 예산 성격, 즉 활용되는 예산이 일반예산 혹은 기금예산인지를 조사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체 패널예산의 증감을 파악하기 위해 예비조사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을 시계열적으로 파악할 것이다.

다. 조사내용

통계청 외부 품질진단 방법과 패널조사만의 추가적인 쟁점 검토에 기반하여 조사대상 패널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은 <표 2-2>와 같다. 실제로 조사대상 패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표는 <부록 2>에 제시하였다. 조사대상 패널의 조사단위와 패널의 조사진행 단계를 고려하여, 항목별 응답여부 및 응답내용은 응답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구조화된 조사표를 활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패널조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많은 문항이 개방형으로 제시되었다.

제3절 연구방법

1. 조사대상 패널

국내의 모든 패널조사를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분석에서 제외되는 패널과 그 이유에 대해 간단히 언급함으로써 그 대상을 한정하고자 한다.

먼저, 현재 패널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조사만 포함된다. 과거에 패널이 운영되다가 중단된 것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현재 조사계획은 가지고 있으나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도 제외된다. 중단된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어렵고, 연구관심이 과거 조사보다는 현시점에서 운영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패널에 주어질 있기 때문이다.

〈표 2-2〉 패널 현황 파악 조사항목

영역	조사 항목
조사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명 및 기관: 공식 패널명(영문병기, 약어), 조사기관명, 관련 정부부처 - 조사연역: 조사계획시기, 예비조사, 최초 본조사, 조사주기, 조사차수, 조사 내용 및 조사대상, 조사내용 개편여부 - 국가통계승인: 승인여부, 승인번호, 승인 시기, 승인신청 의사 - 벤치마킹 대상이 된 패널조사 : 국내외 패널조사 - 조사목적: 목적, 필요성, 연관된 주요 정책 이슈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조사내용: 주요 조사영역 및 조사항목(응답자별) - 중요한 조사항목 변경 내역(시점, 변경내용, 응답자별)
표본추출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단위 및 대상: 단위(개인, 가구, 사업체), 차수별·조사단위별 조사대상 - 패널지속기간: 한정/지속, 교체기간 - 표본추출: 모집단, 표본프레임, 표본추출 방법, 표본수 - 1차년도 응답률: 무응답률, 표본 대체 여부 및 방법 - 추적원칙: 이탈자 재접촉 여부, 표본구성원 분가시 추적여부 - 표본유지율: 조사단위별, 조사차수별 원표본유지율, always in/ever out - 표본탈락: 사유(추적불가, 응답거부), 이탈자 특성, 대처방법 - 표본추가 여부, 표본유지 애로사항 등
현장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조사 진행주체(기관, 전문조사기관) 및 역할분장: 현장조사 지도방법 (면접원 교육, 실사담당자와의 접촉정도 등) - 현장조사 방법(면접, 우편, CAPI 등), CAI 도입여부 및 계획 - 조사 차수별 응답자와 면접원 일치율 - 면접원 관리 : 신분증 발급, 감사편지, 정보제공, 행사개최 등 - 응답자 관리 : 사전예고편지, 응답거절자 편지, 소식지, 정기적 전화연락, 동료 및 친척 연락처 파악, 이사시 주소파악, 생일축하 카드, 면접원 수기, 조사분석 결과 제공 등 실시 여부 - 답례품 제공여부 및 비용, 응답자 커뮤니티 존재여부
자료입력 및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입력 및 에디팅 프로그램 - 내용검토(데이터클리닝): 클리닝 방법 - 가중값 부여방법: 1차년도 가중치 부여방법, 2차년도 이후 횡단면 및 종단면 가중치 부여방법 - 오차측정: 표본오차, 표준오차, 변동계수, 신뢰수준 작성여부
문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작성 여부: 예비조사보고서, 현장조사 계획서, 면접원 매뉴얼, 실사보고, 내용검토(데이터클리닝) 보고서, 오차측정정보보고서, 표본관리보고서
자료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이용자 집단(학계, 정부 등) 및 요구반영 경로 - 자료를 이용해서 작성된 논문수 : 종류(학위논문, 학술지논문 편수), 종단 자료분석을 통한 논문비율 - 원시자료(raw data) 제공 경로 및 비용(유료, 무료) - 자료 이용자 가이드 북 제공 여부
인력 및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널조사 연구원수, 학위, 전공, 참여도, 정규직 여부, 패널조사 연구경력 등 - 연구인력 교체 내역 - 차수별 예산(계획단계, 본조사 차수별 예산) 총액 및 예산 성격 - 예산의 사용처 : 연구원 인건비, 현장조사 비용, 기타비용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패널조사의 문제점 - 패널조사의 발전방향

둘째로, 중앙 정부부처나 정부출연연구소, 공단과 같이 정부예산을 사용하여 공적인 기관에서 수행하는 패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부문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되는 패널조사는 제외된다. 한국가구패널조사의 경우 국내 최초의 패널이긴 하나 민간에서 진행한 것이고, 현재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셋째로, 순수 패널조사만 포함되고 유사 패널 혹은 사후적으로 패널 형태로 분석이 가능한 조사도 제외된다. 통계청, 농림부의 경우에도 유사 패널조사가 운영되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가계조사, 농가경제조사의 경우 통계청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일 조사구를 일정 기간 동안 반복해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패널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조사구에서 이주하는 경우 별도의 추적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조사구의 신규 진입자를 대체 조사하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의 패널조사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조사설계 자체가 시계열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5년 주기로 표본을 개편하는 연동표본(rolling sampling)을 이용하기 때문에 패널운영 기간도 5년으로 한정되는 문제를 안고 있어서, 본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⁵⁾.

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현시점에서 공적인 중앙 정부부처에서 정부예산, 즉 일반예산이나 기금을 이용하여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 계획이 확정된 패널이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패널은 19개로 <표 2-3>에 제시된 바와 같다. 그러나 한국노동연구원의 ‘비정규직 패널’과 한국

5) 하지만 이들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사후적으로 패널을 구성하여 분석하려는 시도가 존재한다. 앞에서 지적한 자료의 한계로 인해, 사후 패널화 시도도 연동표본이 개편되지 않는 시기로 한정되거나, 짧은 기간 동안의 자료를 패널화하여 분석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후적으로 패널화한 경우에도 패널탈락으로 인한 표본의 대표성의 문제를 안게 된다. 예를 들어, 월별로 조사가 진행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표본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은 5년 동안(1998~2002년)의 표본탈락률이 53.5%, 도시가계 조사의 경우 20개월 동안은 패널탈락률이 63.3%로 나타났다(이지연, 2005). 즉,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5년 동안 최초 조사에 포함된 조사가구의 과반수 이상이 마지막 60회차에서 조사되지 않았고, 도시가계조사의 경우 1년 8개월 동안 원표본의 60% 이상이 탈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표본탈락의 문제는 탈락이 무작위로 발생하지 않고, 어떤 특성을 지닌 표본의 전체에 비해 탈락률이 높거나 낮음으로 인해 표본 대표성의 문제를 야기한다. 통계청이나 농림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동표본 형태는 사후적으로 패널화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지만, 앞에서 지적한 한계를 안고 있다. 이들 자료를 사후적으로 패널형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유사패널은 본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직업능력개발원의 ‘박사 후 패널’은 조사시점에서 아직 운영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 조사에서는 제외되었고, 최종 조사는 17개 패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표 2-3〉 조사대상 패널 현황

번호	조사명	조사기관	결과	번호	조사명	조사기관	결과
1	한국노동패널조사	한국노동 연구원	응답	11	여성가족패널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응답
2	고령화연구패널		응답	12	여성인력패널조사		응답
3	사업체패널		응답	13	한국영유아중단 연구	육아정책 개발센터	응답
4	비정규직패널		비해당	14	장애인고용패널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응답
5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한국고용 정보원	응답	15	한국복지패널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응답
6	청년패널		응답	16	의료패널		응답
7	한국청소년패널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응답	17	인구패널(노동부)		응답
8	한국교육고용패널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응답	18	국민노후보장패널	국민연금 관리공단	응답
9	인적자본기업패널		응답				응답
10	박사 후 패널		비해당	19	한국교육중단연구	한국교육 개발원	응답

2. 자료수집 방법

최종 선정된 17개 조사대상 패널에 대한 자료수집은 두 가지 방식이 주로 활용되었다. 첫째, 자료수집 방법은 조사대상 17개 패널의 운영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2007년 11월 7일~12월 7일까지 1개월에 걸쳐 이때

일을 통해 이루어졌다. 메일을 통해 수집된 자료 중에서 항목무응답의 경우나 일관성에 문제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 조사를 통해 보완되었다⁶⁾.

둘째, 조사대상 패널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발행한 문헌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된 자료를 추가로 활용하였다. 설문조사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자료를 입력하고 분석하였으나, 부족한 경우 통상 패널조사 운영 기관에서 발행하는 예비조사 보고서 및 각종 패널조사 결과보고서 자료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제4절 패널조사 현황 분석결과

1. 패널조사의 현황

가. 패널조사 개요

조사시점인 2007년 11월 현재 중앙 정부부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공단 등 공적 기관에서 정부 예산을 사용하여 현재 운영 중이거나 운영 계획이 확정된 패널은 총 10개 기관의 17개로 나타났다(표 2-4 참조). 전체적으로 패널조사가 운영되고 있는 분야는 교육, 노동, 복지, 가족, 청소년과 관련된 정부업무로, 이 분야는 외국에서도 패널조사가 많이 운영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를 조사대상의 생애주기별로 보면, 인구패널을 통해 출산에서부터 아동양육, 다양한 청소년 코호트 패널, 학교에서 직업으로 전환, 노동 및 직업, 중년 및 노령층 등을 포괄하고 있어 전 생애주기에 대해 패널조사가 구축되어 있다. 즉, 패널조사는 전 생애주기에 걸쳐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정부업무 관련 부처별로 보면 노동부가 6개(청년패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 고령화연구패널, 장애인고용패널, 한국노동패널, 사업체패널)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4개(인구패널, 한국복

6) 제2절의 조사내용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광범위한 자료수집을 시도하였으나, 불성실하게 작성된 항목이나 신뢰성이 낮은 항목은 실제 분석과정에서 제외되었다.

〈표 2-4〉 국내 패널조사

번호	패널 조사명	운영기관	관련 정부부처	국가통계승인 (승인연도, 번호)
1	한국청소년패널조사 (KYPS: Korea Youth Panel Survey)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국가청소년 위원회	비승인 (계획 없음)
2	한국교육종단연구2005 (KELS 2005: Korea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인적 자원부	승인 (2006, 33408)
3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KEEP: Korea Education & Employment Panel)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교육인적 자원부	승인 (2004, 38902)
4	청년패널조사 (YP: Youth Panel)	한국고용정보원	노동부	승인 (2007, 32705)
5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GOMS: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한국고용정보원	노동부	승인 (2006, 32704)
6	여성인력패널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수탁)	여성가족부	비승인 (잘 모름)
7	고령화연구패널조사 (KLoSA: Korea Longitudinal Study of Aging)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부	승인 (2006, 33602)
8	장애인고용패널조사	한국장애인고용 촉진공단	노동부	승인 (2007, 38303)
9	한국아동패널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육아정책개발센터	여성가족부	비승인 (08년 예정)
10	인구패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수탁)	보건복지부	비승인 (09년 예정)
11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부	승인 (1998, 33601)
12	여성가족패널조사 (KLoWF: Korea Longitudinal Survey of Woman & Family)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여성가족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승인 (2007, 33801)
13	한국복지패널조사연구 (KoWePS: Korea Welfare Panel Study)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보건복지부	승인 (2006, 33109)
14	한국의료패널 (KoHPS: Korea Healthcare Panel Study)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보건복지부	승인 (2007, 33110)
15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KReIS: Korean Retirement & Income Study)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원)	보건복지부	승인 (2005, 32201)
16	사업체패널조사 (WPS: Workplace Panel Survey)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부	승인 (2006, 33603)
17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HCCP: 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노동부, 교육인적 자원부	승인 (2005, 38903)

지패널, 한국의료패널, 국민노후보장패널), 교육인적자원부 2개(한국교육중단연구, 한국교육고용패널), 여성가족부 2개(여성인력패널, 한국아동패널), 국가청소년위원회 1개(한국청소년패널)이고, 이외에 부처 공동 관련 패널로는 여성가족패널(여성가족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인적자본기업패널(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이 있다.

그리고 17개 패널을 패널운영 기관별로 보면 13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4개 패널은 한국고용정보원 2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각각 1개의 패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직접 혹은 위탁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13개 패널 현황을 보면 한국노동연구원(노동패널, 사업체 패널, 노령화연구패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복지패널, 의료패널, 인구패널)이 각 3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교육고용패널, 인적자본기업패널)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성가족패널, 여성인력패널) 각 2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청소년패널), 한국교육개발원(교육중단연구), 유아정책개발센터(아동패널)에서 각각 1개의 패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에서 중앙 정부부처에서 직접 운영하는 패널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인력패널’과 보건복지부의 ‘인구패널’로 각각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위탁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패널은 이 2개의 위탁 패널을 제외한 11개이다⁷⁾.

한편, 전체 17개 패널 중에서 통계청 승인통계가 13개, 비승인 통계가 4개인데, 비승인 통계 중에서 ‘한국아동패널’과 ‘인구패널’은 각각 2008년과 2009년에 승인을 받을 계획이지만, ‘한국청소년패널’과 ‘여성인력패널’은 승인 신청계획이 아직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연도를 보면 노동패널이 1998년, 나머지는 대부분 2004년 이후 집중적으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승인연도 집중 현상도 패널조사가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구축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이와 같은 예산조달 및 사업 운영주체의 문제로 인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통계 가능한 사업도 11개 패널로 한정되어, 패널이라는 관점에서 전체 패널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 부재한 무정부주의 상황이다.

나. 조사진행 차수

1998년에 본조사를 시작한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을 제외하면, 2000년 이전에 공적 영역에서 시작한 패널조사는 없었다. 나머지 패널은 모두 2001~08년 사이에 모두 본조사가 진행되었거나 계획이 확정되어, 시기적으로 매우 짧은 기간에 급속히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우경제연구소에서 1993년에 시작된 한국가구패널조사, 일명 ‘대우패널’의 연구 성과를 이어받은 한국노동패널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서 2000년 이후 국내에서 패널조사가 급속히 확산되었다. 외국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패널연구가 진행되어 왔다(남재량 외, 2007). 1966년부터 NLS(National Longitudinal Survey), 1968년 PSID를 시작한 미국이 가장 빨리 패널조사를 도입하였고, 1984년 독일의 GSEP, 1991년 영국의 BHPS, 1993년 캐나다의 SLID, 2001년 호주의 HILDA(Household, Income and Labor Dynamics in Australia) 등에 비하면 다소 늦게 출발하였으나, 국내에서도 이후에 급속히 패널조사가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패널조사의 도입은 보다 정교한 인과관계 분석이나 정책효과 분석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패널조사의 확산과정을 보면 한국노동연구원에 이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01년 청년패널 본조사를 시작했고, 2002년 사업체패널(한국노동연구원), 200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한국청소년패널, 2004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교육고용패널, 2005년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노후보장패널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자본기업패널,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종단연구가 본조사를 시작했고, 2006년 고령화연구패널, 복지패널이 출발했다. 그리고, 2007년에 여성인력패널, 여성가족패널, 의료패널이 본조사를 출발시켰다(표 2-5 참조).

2007년을 기준으로 본조사 진행 차수(wave)를 보면, 최초 공적 영역의 패널인 노동패널이 10차, 사업체패널(6차), 청년패널(7차) 청소년패널(중2 패널) 5차, 청소년패널(초4 패널)과 교육고용패널 4차, 교육종단연구와 노후보장패널 3차까지 진행되었고, 조사시점 현재 2차까지 진행된 것으로는 대졸자직업이동, 고령화연구패널, 복지패널, 인적자본기업패널이 있다. 2007년 올해 1차 본조사를 진행한 여성인력패널, 여성가족패널

〈표 2-5〉 패널조사 계획 및 진행 차수

번호	조사명	계획연도	예비조사	1차조사	진행차수 (2007기준)	
1	청소년패널	중 2	2001	2003	2003	5
		초 5	2001	2004	2004	4
2	교육중단연구	2004	2004	2005	3	
3	교육고용패널	2003	2003	2004	4	
4	청년패널	YP2001	2000	2001	2001	7
		YP2007	구축 중			-
5	대졸자직업이동	2005	2006	2006	2	
6	여성인력패널	2007	없음	2007	1	
7	고령화연구패널	2005	2006	2006	2	
8	장애인고용패널	2007	2008	2008	0	
9	아동패널	-	2007	2008	0	
10	인구패널	2008	2008	-	-	
11	노동패널	1998	1998	1998	10	
12	여성가족패널	2006	2006	2007	1	
13	복지패널	2005	2006	2006	2	
14	의료패널	2006	2007	2007	1	
15	노후보장패널	2004	2005	2005	3	
16	사업체패널	2002	2002(5)	2002(5)	6(3)	
17	인적자본기업패널	2004	2004	2005	2	

널, 의료패널이 그 뒤를 잇고, 2008년에 시작할 예정인 장애인고용패널, 아동패널이 본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형편이다.

패널조사 진행계획 및 운영과 관련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사실은 개별 패널이 조사계획에서 예비조사를 거쳐 본조사에 이르는 준비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이다. 운영 중인 패널의 준비기간이 대부분 1년으로 매우 짧고, 2년 이상 기간을 가지고 준비한 조사는 청소년패널뿐이고, 아동패널의 경우 예산상의 문제로 본조사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이는 예비조사를 통해 패널조사로의 설계가 타당한지를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형식적으로 예비조사가 운영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심지어 당해연도 계획을 수립하고 바로 본조사를 실시한 여성인력패널, 노동패널, 사업체패널이 있는가 하면, 여성인력패널의 경우 예비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조사의 특성상 조사설계, 현장조사 진행, 자료입력 및 분석, 생성된 자료의 연구 및 정책적 활용을 전반적으로 계획하여 이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복 점검하여 시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⁸⁾.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한번 설계된 패널조사 계획이나 내용은 수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매우 짧은 기간에 급속히 패널조사 수가 증가한 것과 동시에 개별 조사의 짧은 준비기간도 부실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짧은 조사준비 과정으로 인해 청년패널, 사업체 패널, 복지패널의 경우 원표본을 재구축하는 등 실제로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 패널조사의 유형

조사대상 패널에 대해 몇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그 유형을 나눠 보면, 이미 다양한 종류의 패널이 공적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6 참조). 첫째, 조사단위별로 보면 단위가 개인인 패널이 8개, 가구단위 조사 7개, 사업체단위 조사가 2개로 다양한 조사단위의 패널이 운영 중이다. 개인단위 조사의 경우 생애주기가 청소년 코호트인 경우가 청소년패널, 교육종단연구, 교육고용패널, 청년패널, 대졸자 직업이동 패널 등 5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가족으로부터 일정 정도 분리된 청소년에 대한 조사는 가구조사보다 청소년 개인단위 조사설계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인단위 조사의 경우에도 1차 조사에서는 가족이나 부모에 대한 기본사항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아, 순수하게 청소년 개인만을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패널의 경우와

8) 참고로 고령화연구패널은 3차에 걸쳐 예비조사를 실행하였다. 1차는 문항의 타당성 및 적용가능성을 점검하고, 2차 예비조사는 CAPI 적용의 적합성을, 3차는 최종 점검을 목적으로 면접원 교육, CAPI 설문, 실사 관리 등 모든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였다(이삼식 외, 2006에서 재인용).

같이 최초 조사시에는 청소년의 학부모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단위학교도 패널방식으로 추적조사를 하고 있는 교육종단연구의 경우도 있다.

〈표 2-6〉 패널 설계유형

번호	조사명	조사단위	복수패널 여부	조사주기	완료예정
1	청소년패널	개인	중2 패널	1년	2008
			초4 패널	1년	
2	교육종단연구	개인	단일	1단계(01~10년): 1년, 2단계(11~19년): 2년, 3단계(20~23년): 1년	2023
3	교육고용패널	개인	단일	1년	최소 13년
4	청년패널	개인	YP2001	2006년 1년 주기, 이후 2년 주기	10년이상
			YP2007	1년 주기	10년이상
5	대졸자직업이동	개인	단일	1년	8년차까지
6	여성인력패널	개인	단일	1년	미정
7	고령화연구패널	개인	단일	1년 (기본, 특별 각 1년)	없음
8	장애인고용패널	개인	단일	1년	미정
9	아동패널	가구	단일	1년	2019
10	인구패널	가구	단일	1년	미정
11	노동패널	가구	단일	1년	지속 조사
12	여성가족패널	가구	단일	1년 (안정 후 2년 주기)	
13	복지패널	가구	단일	1년	미정
14	의료패널	가구	단일	1년	미정
15	노후보장패널	가구	단일	2년	2015
16	사업체패널	사업체	단일	2년	무기한
17	인적자본기업패널	사업체	단일	2년	최소 10년

가구단위 조사의 경우 개인보다는 가족상황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 아동, 인구, 노동, 복지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주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다. 가구단위 조사의 경우에도 조사대상가구에 대한 개인패널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단위 조사와 엄격히 구분되지는 않는다. 이런 경향으로 인해 많은 가구단위 패널조사 운영자들은 ‘개인 및 가구단위’ 조사로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개인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는 개인단위 조사에 비해 가구단위 조사는 가구차원의 분석이 가능하고, 추적 조사 단위가 가구라는 특성을 지닌다. 한편, 조사단위가 사업체인 패널은 2개로 사업체패널과 인적자본기업패널이 있다.

둘째로, 단일 사업 명칭하에 실제 운영 패널이 단일패널인 경우가 17개 중 15개로 대부분이고, 2개의 패널이 운영되는 복수패널은 청소년패널과 청년패널이다. 교육고용패널의 경우 같은 시기에 중학교 3학년과 일반계·전문계 3학년을 별도의 표본으로 구성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복수패널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종단연구, 교육고용패널, 대졸자 직업이동패널 등은 향후 복수의 패널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청소년 코호트 패널의 경우, 생애주기가 일정기간 경과하면 청소년패널과 같이 추가 패널을 구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셋째로, 패널운영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기간한정패널과 지속운영패널을 구분해서 보면, 청소년패널(중2 패널 2008년 종료), 대졸자직업이동(8년차), 교육종단패널(2023년) 및 노후보장패널(2015년)만 패널운영 만료기간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나머지 패널은 최소 운영기간만 명시하거나 무기한, 미정인 경우가 많아 지속운영 여부에 대해 명확한 계획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가능한 한 장기적으로 패널을 운영할 계획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애 특정 코호트 조사의 경우 복수의 패널을 운영하거나 혹은 표본개편 등을 통해 조사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교육고용패널은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전환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음에도 최소 13년 이상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고, 청년패널도 10년 이상으로 명확한 만료시점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고령화연구패널, 노동패널, 사업체패널은 지속조사 혹은 무기한 조사라고 응답해, 종료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불명료한 조사만료 시점은 향후 패널사업 예산 증가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것이다.

넷째, 조사주기를 보면 13개 패널이 1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4개 패널(청년패널, 노후보장패널, 사업체패널, 인적자본기업패널)만이 2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업체 단위 2개 조사는 모두 2년 주기이고, 청년패널의 경우 2007년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전환하였으며, 여성가족패널의 경우 조사 안정화 이후 2년 주기로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1년 주기인 고령화패널은 기본조사와 특별조사를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교육중단연구는 단계별로 1단계인 2010년까지 1년 주기 운영 후, 2단계(2011~19년)는 2년 주기, 3단계(2020~23년)에는 다시 1년 주기로 운영할 계획이다.

2. 조사목적 및 내용

가. 조사 대상과 목적 및 내용

조사목적 및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목적, 조사내용, 패널조사 방식으로 설계한 이유 및 연구와 관련된 정책이슈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여기서는 17개 패널이 다루고 있는 조사목적, 조사내용과 함께 조사대상도 동시에 검토하여, 이를 기초로 해서 패널조사간 유사중복 문제도 이어서 다루고자 한다(표 2-7 및 부록 1 참조).

전체 패널조사의 조사대상을 생애주기 관점에서 보면 출산과 관련된 인구패널,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패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패널, 교육중단연구, 청년패널, 교육고용패널, 학교 졸업 후에는 대졸자 직업이동패널, 여성인력패널, 노동패널이 있고, 중고령자에 대해서는 고령화 연구패널, 노후보장 패널이 있다. 출생에서 노후까지 모든 연령층을 포괄하여 전 생애에 걸쳐 패널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청년패널, 교육고용패널, 교육중단연구, 청소년패널, 대졸자 직업이동 패널 등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어 청소년 연령대를 다루는 여러 개의 패널이 존재한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청소년 코호트 패널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이유는, 물론 청소년기가 다양한 변화양상을 보인다는 특징도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패널조사가 도입된 2000년 전후에 IMF 경제위기로 인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

〈표 2-7〉 조사목적 및 정책 이슈

조사명	조사대상	조사목적	관련 정책 이슈
한국청소년 패널(KYPS)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틀: 2003 교육통계연보 - 중 2: 3,000명 (학생, 학부모) - 초 4: 2,500명 (학생,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들의 직업 선택, 향후 진로 설정, 진로 준비, 여가, 일탈 행위 등에 대한 종단적 데이터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의식 및 진로과정 (고졸청소년의 노동시장 진입, 학업성취 및 대학 진학) - 일하는 청소년의 변화와 사교육 참여 - 청소년 일탈행위 실태 및 원인 - 여가제약 및 여가참여 양상 - 심리상태 및 부모/교사/친구관계
한국교육 종단연구 (KELS) [한국교육 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틀: 2005 교육통계연보 · 중학교(150개교) 1학년 6,908명 *학부모, 담당교사, 학교장, 학교통계 등 조사 *대체표본 추가 표집 · 중1학생을 17년간 추적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개개인이 여러 수준의 교육단계를 거쳐 직업세계로 진입해 가는 과정을 추적 조사하여, 주요 교육문제와 진로문제에 대한 자료 수집, 분석 - 중등교육 관련 종단적 자료의 수집,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수집, 인적자원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자료 수집 - 학교 교육의 효과성, 사회이동과정에서 학교교육의 영향력에 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폭력 및 학생 일탈 - 사교육 및 과외 경감 대책 - 학교정책의 효과 및 평가, 개선방안 - 고교평준화 제도의 논란(하향평준화) - 전문계 교육의 부실화와 발전방향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한국교육고 용패널 (KEEP)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틀: 2003 교육통계연보 · 중 3: 2,000명 · 일반고 3, 전문계고 3: 각 2,000명 *보호자, 담임교사, 학교행정가 동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진학하는 과정과 중등 및 고등교육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과정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 학교교육의 투입, 과정, 산출에 대한 요인 조사, 학교교육 요인이 노동시장으로 진입과 이동에 미치는 요인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노동시장 연관성 파악 - 노동시장 정책의 효과성 검증 - 기업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기여 - 외국과의 비교 및 정보교류의 장 확대 - 자기개발 및 평생직업교육의 방향 제공

〈표 2-7〉의 계속

조사명	조사대상	조사목적	관련 정책 이슈
청년패널 (Youth Panel) [한국고용정보원]	· 표본틀: 1995 인구주택총조사 의 10% · 만 15~29세의 청년층 5,900명 (2001년 기준)	- 청년층의 학교에서 직업 으로의 이행과정 및 노 동시장 경로(career path) 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 획득	- 청년실업 - 인력수급의 양적/질적 불일치 - 사교육/교육훈련/자격 의 효과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한국고용 정보원]	· 표본틀: 전문대, 대학졸업생 DB · 전문대/대학 졸업생 25,000명 (2004.9/2005.2 졸업)	- 대학졸업자의 경력개발 및 직업이동경로를 추적 조사 하여 DB로 구축함으로써 교육·노동시장간 신뢰성 있는 인력수급 정보 제공 및 인력수급 불일치 완화 도모를 위한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 고학력 청년실업 문제 - 직업불일치 문제 - 과잉교육, 직업교육 및 능력개발 - 여성의 경력단절
여성인력 패널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 기업내 여성대리 2년차 이상 관 리자 · 기업인사담당자	- 기업내 여성관리자의 경 력형성과정 추적, 여성관 리자의 환경요인과 이들 이 여성관리자에게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함	- 국가성평등지수 개선 기여 - 여성의 관리직 진출 장애요인 제거
고령화연구 패널 [한국노동 연구원]	· 표본틀: 2005 인구주택총조 사의 10% 표본 조사구 261,237개 · 45세 이상 개인 약 10,000명(제 주도 제외 전국 6,171가구) *질병관리본부와 연계, 김진조사 예정	- 중고령인구의 정확한 실 태조사를 통해 향후 고령 사회로 변화해 가는 과정 에서 개인의 행동을 예 측하고 이를 토대로 효과 적인 사회경제정책을 수 립하고 시행하는 데 활용 될 기초자료 생산	- 중고령자 경제활동참여 및 소득과 자산 - 사회복지육구, 건강 및 의료시설 이용 - 중고령자의 가족관계
장애인고용 패널 [한국장애 인고용촉진 공단]	· 법정장애유형을 지니고 있는 전국의 만 15세 이상 재가장애인	- 장애인의 경제활동 관련 전반적인 기초통계를 생 산하고, 취업과 직업유 지에 영향을 주는 개인 적, 환경적 요인을 규명 하여 고용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통계 자료 생성	- 장애인의 의학적 손상 과 직업적 능력 및 고 용 성과와의 관계 -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상태와 삶의 질 - 생산적 복지 구현과 체계적인 직업재활시 스템 구축과 평가/고 용확대 방안 모색

<표 2-7>의 계속

조사명	조사대상	조사목적	관련 정책 이슈
한국아동 패널 [육아정책 개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신생아 (1,800명) · 신생아 일차양육자(주로 어머니) · 신생아 어머니 · 신생아 아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에서부터 취학 전까지 아동의 성장, 발달 및 생활에 관한 종단적 자료 수집 - 부모, 가정 및 육아지원을 포함하는 아동의 주요 환경으로부터 제공되는 경험과, 이러한 경험이 단기적인 성장·발달에 미치는 영향, 장기적으로 초등학교에서의 적응 및 성취에 미치는 영향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벌이 가정의 대리양육 서비스 - 유아교육 및 보육 통합과 관련된 기초자료 제공
인구패널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12,000가구의 미혼자, 기혼자,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대책 마련을 위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관계 규명 등 - 출산에 대한 인식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고 출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 지속에 따른 인구노령화 - 장기적인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
한국노동 패널 [한국노동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도시거주 5,000가구와 해당 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노동시장 이동 및 성과를 장기간 추적 조사하여 동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횡단면 자료만으로 불가능한 심도 있는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의 성격, 노동력 상태 변화, 건강상태 변화 등을 파악
여성가족 패널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8,500가구만 19~64세 여성 (약 10,0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생활세계와 가족의 구조 및 변화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패널조사 -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지위 변화와 가족생활과의 관계를 비롯하여, 가족가치/가족관계의 변화, 가족과정과 이벤트의 변화, 가족구조의 변화를 횡단면뿐만 아니라 종단면적으로 추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및 경제적 자립 증진, 여성빈곤화 방지 - 가족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표 2-7〉의 계속

조사명	조사대상	조사목적	관련 정책 이슈
한국복지 패널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표본가구에 속한 15세 이상의 가구원 - 가구(7,072명) - 가구원(14,463명) - 아동부가(75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에 대한 대표성 있는 표본을 확보하여 조사의 정확성과 역동적 분석의 유의성을 동시에 확보 - 체계적인 조사표 작성을 통해, “복지패널”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함으로써 사회 복지 관련지표 생산과 관련 연구·분석 등에 널리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과 사회양극화의 심화 - 비정규직 확대와 청년 실업의 증가 - 가구소비의 위축과 가계부채의 증가
한국의료 패널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약 8,000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 이용과 비용지출의 수준 및 배분을 추정하고, 의료전달시스템 및 보험체계의 동태적 변화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의료이용 및 의료비 패널 데이터 구축을 통한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정책의 수립·시행 - 조사모형은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와 심층적인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 내용을 포함하는 모형 구축 - 비급여 등 본인부담관련, 의약품 지출, 민간보험관련 통계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전달체계 분석 - 의료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민간보험 규모 및 내용 파악 - 의료이용 행태 분석
국민노후 보장패널 [국민연금 관리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틀: 2000 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구 24,995개 · 만 50세 이상 가구원 거주 5,133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소득보장의 욕구와 중요도 파악, 연금 및 고령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생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고령화와 중/고령자의 노후준비 - 공적연금 및 노후소득 보장정책 - 중/고령자의 경제적 복지

〈표 2-7〉의 계속

조사명	조사대상	조사목적	관련 정책 이슈
사업체패널 [한국노동 연구원]	· 농림어업 및 광업을 제외한 전산업에서 상용근로자 30인 이상인 일반사업장과 공공기관 - 4,275개 사업장 (일반사업장: 3,916개, 공공기관: 359개)	- 사업체의 동태적 변화와 고용구조변동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기업의 고용·평가·보상·교육·훈련 등 전반적 인적자원관리 및 노사관계 체계를 평가하고 새로운 사회경제적 환경에 적합한 인적자원관리 및 노사관계 모델 및 정책을 개발하는데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	- 비정규직 고용의 실태와 현황, 전망 - 인적자원관리 정책 - 노사간 갈등과 대립, 노사관계
인적자본 기업패널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 근로자수 100인 이상이면서 일반기업 이상 - 기업: 450개 - 사업장: 205개 - 근로자: 14,631명 (팀장 4,338명 및 팀원 10,293명)	- 한국의 기업이 지닌 인적자원을 파악하고, 기업들이 인적자원개발에 기울이는 노력, 그리고 이 같은 기업의 인적자원 및 인적자원개발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계열자료를 구축함	-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과 근로자의 지식 및 숙련 형성

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 외에도, 우리 사회의 당면한 사회문제를 중심으로 패널이 구축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인구패널이, 급속한 고령화 문제를 다루는 고령화 연구패널과 노후보장 패널이 운영되고 있다.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는 노동패널, 장애인고용패널, 복지패널, 여성가족패널 등이 운영되고 있다.

한편, 패널조사에서 다루고 있는 조사내용을 보면 교육,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전환, 노동, 여성, 아동, 인구, 복지, 의료, 사업체를 대상으로 노사관계, 인적자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패널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사단위에 따라서 개인단위 조사는 학교·가정·사회생활, 사교육, 진로·직업교육훈련, 결혼·출산, 경제활동, 사회보장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가구단위 조사의 경우, 가구변동, 가족관계, 주거환경, 보육실태,

가족경제 등을 주로 다룬다. 사업체단위 조사는 사업체의 특성, 노사관계, 인력개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개별 패널에 대해 조사 대상, 목적, 패널설계 이유, 관련 정책 이슈 및 조사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고령화연구패널과 인구패널을 제외한, 나머지 6개의 개인단위 조사는 모두 청소년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학교 및 직업세계를 다루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청소년패널은 조사시점에서 중학교 2학년과 초등 4학년 학생집단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진로설정 및 준비, 여가, 일탈, 생활영역, 자아관 등을 조사하여, 청소년에 대한 종단적 데이터 구축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삼고 있다. 관계된 정책이슈로는 청소년의 진로의식 및 진로과정(고졸청소년의 노동시장 진입, 학업성취 및 대학 진학), 일하는 청소년의 변화와 사교육 참여, 청소년의 일탈행위 실태 및 원인, 여가제약 및 여가참여 양상, 심리상태 및 부모·교사·친구관계 등이다. 청소년 연령대의 성장과정에 따른 변화양상과 인과관계 파악을 위해 종단적 연구설계로 운영 중이다.

교육종단연구의 경우,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성취(학생성취도 검사 및 교사 평가), 가정생활, 학교생활, 학습활동, 여가, 자아개념 등을 조사하고,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교교육을 매년 조사하여 그러한 경험이 학생들의 인지적·정의적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려 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가정적 배경에 따라 학교교육의 경험과 결과에 어떤 차이가 있으며, 학교의 종류와 유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05). 관련된 정책이슈는 학교 폭력 및 학생 일탈, 사교육 및 과외 경감 대책, 학교정책의 효과, 평가 및 개선방안, 고교평준화 제도의 논란(하향평준화), 전문계 교육의 부실화와 발전방향,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등이다. 학교교육 및 정책 효과 평가를 위해서 동일 학생을 반복 측정하는 조사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교육고용패널은 청년층의 교육관련 정보구축을 통해 진학, 진로, 노동시장 진입 관련 연구수행 및 학교교육과 직업훈련의 성과가 경제적 성과에 기여하는 정도를 파악하는 데 조사의 초점이 두어져 있다. 이를 위해 중학교 3학년과 일반계 및 전문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및 가정생활, 여가, 사교육, 근로경험, 진로계획 및 진로지도 등을 조

사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정 및 학교환경을 조사하기 위해 학생의 보호자와 담임교사, 학교행정가를 동시에 조사한다. 관계된 정책적 관심사는 교육-노동시장 연관성 파악, 노동시장 정책의 효과성 검증, 기업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기여, 자기개발 및 평생직업 교육의 방향 제공 등이다. 청년층 인적자원의 현재 수준 및 축적과 활용 과정을 파악하여 인적자원개발 정책수립에 기여하기 위해 종단적인 패널조사로 구축하였다.

청년패널은 청소년의 학교생활, 사회·경제활동, 가정배경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노동정책 수립 및 연구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구축한 패널이다. 공적인 패널조사 중 국내 최초의 개인패널로, 15~2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2001년에 조사를 시작하였고, 조사의 초점이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이행과정 및 노동시장 경로(career path)에 두어져 있다. 청년실업, 인력수급의 양적·질적 불일치, 사교육·교육훈련·자격의 효과 등이 이 조사의 정책적 관심사항이다.

대졸자 직업이동조사는 2년제와 4년제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 직장경험, 직업훈련 등을 파악하여 대학졸업자의 경력개발 및 직업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대학졸업자(2004년 8월 및 2005년 2월)의 5%인 25,000명으로 교육과정, 현재 일자리, 졸업 후 일자리, 일자리 탐색과정, 재학 중 취업, 훈련과정 및 자격증 등 노동시장 진입 및 정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주로 질문하고 있다. 관련된 정책적인 쟁점은 고학력 청년실업 문제, 직업불일치 문제, 과잉교육, 직업교육 및 능력개발, 여성의 경력단절 등이다. 패널조사로 설계한 이유는 특정연도 졸업생의 노동시장 진입과 정책, 경력개발 등의 정보를 얻기 위해 동일인의 장기적인 변화 파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청소년 코호트 패널들과는 달리, 여성인력패널과 장애인고용패널은 여성관리자와 장애인이라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들의 노동시장 경력형성에 관심이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여성인력패널은 기업내 여성관리자의 경력형성 과정을 추적하고, 여성관리자의 환경요인과 이들이 여성관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대리 2년차 이상 여성관리자를 대상으로 직장 근무사항, 교육 및 직업훈련, 경력개발 및 이동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다. 추가로 기업인사담당자에 대해 기업현황, 인사관리제도, 인력운용 현황 등도 파악하고 있다. 이 조사와 관련된 정책적 쟁점은 국가성평등 지수 개선 기여, 여성의 관리직 진출 장애요인 제거이고, 여성 개인의 경험을 추적하여 상이한 경력형성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종단적 연구설계로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고용패널은 법정장애유형을 지니고 있는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취업 및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을 규명하고자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조사내용을 보면 경제활동상태, 장애정보, 직업능력, 고용서비스, 직업능력개발, 일상생활 및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애인의 의학적 손상과 직업적 능력 및 고용성과와의 관계, 생애주기별 경제활동상태와 삶의 질, 생산적 복지 구현과 체계적인 직업재활시스템의 구축과 평가, 고용확대방안 모색이 주된 정책적 관심사이다. 즉, 장애인의 장기간에 걸친 경제활동상태 및 직업상의 변화와 이동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종단적 연구설계를 활용하고 있다.

청소년 및 청년 코호트와 여성인력 및 장애인 대상 개인 패널을 살펴본 결과, 두 가지 공통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이들 조사의 공통적인 관심이 학교 및 직업세계에 두어져 있다는 점이다. 조사에 따라 교육효과, 인지적·정의적 발달, 문제행동, 사교육, 장애인 환경, 여성관리자의 장애 요인 등 세부적인 내용과 깊이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공통적 관심사는 청소년과 여성 및 장애인의 중요한 발달과제인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전환 및 적응 문제이다. 이와 같은 공통의 관심사로 인해, 특히 청소년 코호트 패널은 유사중복 통계의 가능성이 지적되었다. 이런 지적으로 교육고용패널, 교육종단연구, 청소년패널의 경우 조사대상과 조사내용에서의 중복가능성으로 사전협의를 통해 연구내용을 조정할 바 있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7). 청소년 코호트 패널의 유사중복 문제는 별도로 검토될 것이다.

둘째, 패널조사 방식으로 설계한 이유를 보면 동태적 변화과정 추적, 청소년 및 특정 집단과 관련된 문제나 정책효과 검증 및 인과적 연구 등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횡단조사나 횡단면 반복조사에 비해 패널조사가 동일 대상에 대한 동태적 변화를 추적하는 조사설계이고, 특정 정책이나 가족과 학교, 직업 등의 인과적 효과를 가장 체

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패널조사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구 및 사업체 패널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개별 패널마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항을 적시하고 있어, 실제 연구결과 및 정책적 활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가구단위 조사를 보면 노동패널을 시작으로 여성가족패널, 인구패널, 복지패널, 의료패널, 아동패널, 노후보장패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패널조사가 운영되고 있다. 출생아동과 그 부모를 취학 전까지 추적하는 아동패널은 기존 패널과 변별되는 연구대상과 주제를 다루고 있다. 아동의 발달과정과 부모의 자녀양육 분야는 맞벌이 가정의 양육 문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라는 정책적 과제와 연결되어 있다. 한편, 여성가족패널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및 경제적 자립, 여성빈곤화 방지 등과 같은 가족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구축된 패널이다. 이를 위해 19~64세 여성가구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경제활동상태와 가족구조, 가족과 관련된 가치, 가족관계, 가족과정 및 가족구조의 변화 추세를 추적한다. 그리고 인구패널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축된 패널로, 전국 표본가구의 미혼자, 기혼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출산 관련 태도, 정부정책에 대한 수용도,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려 한다.

노동패널은 대표적인 가구패널로 도시거주 표본 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개인의 경제활동, 노동시장 이동 및 성과를 장기적으로 추적하는 조사이다. 가구의 소득과 소비, 자산과 부채, 사교육, 주거 등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고, 개인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상태, 일자리 특성 및 만족도, 근로시간 및 임금, 교육훈련 등을 주로 조사한다. 이를 통해 실업의 성격 규명, 노동력 상태변화 및 소득이동 등을 파악하고자 종단적 연구설계로 진행하고 있다. 한편 복지패널은 표본가구를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로 구분하여 표집하고, 표본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일반사항, 가계수지, 경제활동, 사회복지제도와 관련된 항목을 주로 질문한다. 빈곤과 사회양극화, 비정규직 확대와 청년실업문제, 가계부채 등의 문제가 복지패널과 관련된 정책적 이슈이다.

나. 패널 간 유사중복 문제

횡단조사든 패널조사든 조사의 유사중복 문제 판단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그 이유는 첫째, 유사중복이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를 명시적으로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로는 사회현상은 항상 상호관련성을 그 본질적 특성으로 지니고 있어 모든 사회조사는 항상 일정한 중복성을 지닐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유사중복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항상 논란의 소지를 안게 된다. 여기서는 다소 임의적이지만 상식적인 방식으로 유사중복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패널조사간 유사중복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두 조사가 유사중복 문제를 지니기 위해서는, 먼저 조사대상이 유사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조사가 관심을 두는 연구목적과 연구내용에서도 동시에 유사성이 발견되어야만 유사중복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면 유사중복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중복의 정도에 대한 검토를 할 것이다.

현재, 패널조사와 관련해서 유사중복의 가능성이 지적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특정 연령대 코호트 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청소년 연령대 코호트 조사와 중고령자 코호트 조사이다. 두 번째 유형은 일반패널과 특수패널 간 유사중복 문제이다. 여기서 특수패널은 일반패널에서 다루는 하위영역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있어, 포괄 하위관계로 유사중복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면, 보다 일반 가구조사인 노동패널은 여성과 가족관계에 중점을 두는 여성가족패널에 비해 포괄적인 조사로, 두 조사간에는 유사중복 문제가 존재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업체패널과 인적자본기업패널도 동일한 문제를 안게 된다.

첫 번째 유형으로 가장 논란이 많은 문제는 청소년 코호트 패널간 유사중복 문제이다. 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패널,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종단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교육고용패널,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과 대졸자직업이동조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먼저 이 5개 패널은 청소년 코호트라는 조사대상의 유사성이 쉽게 확인된다. 청소년패널은 초등 4학년과 중학교 2학년, 교육종단연구는 중학교 1학년, 교육고용

패널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으로 모두 초중등 과정에 있는 학생집단을 조사하고, 청년패널은 15~29세 청소년, 대졸자직업이동은 전문대와 대학교 졸업생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령범위나 조사대상이 속한 계층에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유사성이 더 두드러진다. 그리고 조사목적에서는 청소년기 발달과제인 학교생활, 학업성취 및 진로, 직업과정에 대한 자료수집을 모두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확인된다. 조사의 초점도 청년패널과 대졸자직업이동이 학교에서 직업으로 전환 및 직업경력에 강조점이 있고, 청소년패널과 교육종단연구, 교육고용 패널은 학교교육의 효과와 직업세계로의 전환에 강조점이 주어져 있다. 물론 청소년패널은 일탈 및 여가나 사회관계 등 발달적 과제도 다루고 있고, 교육종단연구는 학교단위의 교육효과를 검증한다는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조사대상과 연구관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공통적인 연구관심이 존재한다. 학교생활, 학업성취, 진로 및 직업획득, 여가활동 등이 그러하다.

세부적으로 보면 교육고용패널은 매우 애매한 위상을 지니고 있다. 교육효과 검증 측면에서 보면 교육종단연구에 비해 조사방법 및 내용에서 취약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청년패널이나 대졸자직업이동과 연구관심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청년패널은 상대적으로 학생집단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차이점을 지니고 있으나, 대졸자직업이동과 조사대상 및 내용의 중복문제를 지니고 있다. 고졸자의 대학진학률이 높은 우리 현실을 고려하면, 청년패널과 대졸자직업이동, 교육고용패널은 연구관심이 거의 유사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조사대상도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육고용패널, 청년패널, 대졸자직업이동 3개 패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청소년패널과 교육종단연구도 보다 변별되는 연구초점의 조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 유형의 또 다른 연령대인 중고령자 코호트 패널인 고령화연구패널과 노후보장패널 간 유사중복 문제이다. 두 패널 모두 급속한 고령화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패널로, 조사대상과 조사내용에서 거의 유사하다. 조사단위가 개인과 가구로 구분되는 듯 보이나 실제로는 45세 이상 중고령자 개인이나 50세

이상 가구원으로 유사하고, 가족관계 등은 간접적으로도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조사내용에서도 소득, 자산, 근로, 복지, 가족관계 등에서 일치해 거의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청소년 코호트 패널에 비해 문제가 분명하며, 매우 강한 중복성이 발견되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세 번째로는, 가구패널 내에서 일반패널과 특수패널 간의 유사중복 문제이다. 이 문제는 객관적 사실의 문제라기보다는 관점과 이해관계의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루기가 더 어렵다. 사실 노동패널은 오랜 경험과 포괄적인 가족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여성 가구원 표본을 확대하여 여성가족패널의 연구내용을 포함해서 조사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이나 가족관계, 가족구조를 보다 심층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여성가족패널을 별도로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누구도 쉽게 부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관계에 놓여 있는 패널은 노동패널, 여성가족패널, 청년패널, 대졸자직업이동패널 등을 들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특수패널의 요구를 부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한하게 세밀한 특수패널 구축을 허용할 수만은 없다는 점이다. 조사 연구도 경제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목격되는 장애 인고용패널, 인구패널 등과 같은, 대상이나 혹은 내용이 특정한 특수패널의 신규 구축도 이런 우려를 갖게 하는 이유의 하나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은, 외국과 같이 대표적인 가구패널을 구축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노동패널과 같은 대표적인 가구패널을 보다 일반 가구패널로 표본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특정 가구패널의 조사수요를 흡수하는 것이다. 다만, 이 문제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일반패널과 특수패널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체 패널간 일반패널과 특수패널 관계로 인한 유사중복 문제이다. 두 패널 모두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기업내 인적 자원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연구관심을 공유하고 있는 패널이다. 다만 사업체 패널조사가 보다 일반적인 패널로, 인적자원관리 외에도 노사관계, 기업의 노동력 수요 및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중복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심각해 보이는데, 그 이유는 사업체 패널이 두 개뿐이고 또한 조사대상 사업체도 30인 이상과 100인 이상으로 차이가 있고, 사업

장내 조사대상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각각의 패널연구 결과가 어떤 기여를 하는가에 의해 두 패널간의 유사중복 시비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보인다.

3. 표본추출

조사대상 패널의 표본추출 방법을 보면, 개인 및 가구단위 15개 조사의 모집단은 노동패널만 도시거주 가구이고 나머지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전국단위임을 알 수 있다(표 2-8 참조). 표집틀(sampling frame)은 개인패널의 경우 학생대상 조사는 해당연도 교육통계연보를 표집틀로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외적으로, 개인단위 패널에서 대졸자직업이동의 경우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청년패널은 산업직업별 고용조사, 여성인력패널은 한국신용평가에 포함된 100인 이상 기업을 표집틀로 사용하고 있다. 가구단위 패널의 경우 모두 인구주택총조사를 표집틀로 하고 다단계층화 확률표집 방법을 활용해서 표본을 추출하고 있는데, 아동패널만 일정 분만 건수(상반기 250건)가 있는 산부인과 병원을 표집틀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적합한 표집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사업체단위 패널의 경우 사업체패널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공공기관(기획예산처 기준), 인적자본기업패널은 한국신용평가(2005)를 표집틀로 사용하고 있다.

표집 방법을 보면 주로 확률표집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단계확률표집법을 대부분 활용하고 있다. 즉, 여러 단계에 걸쳐 층화표집, 집락표집, 계통표집법을 사용하고 있다. 패널별 세부적인 표집방법을 검토하는 것은 별도의 심층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만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패널은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의 부가조사 형식을 취한다. 별도의 표본추출틀이 없이 OES에서 조사된 5만 가구 중 조사구별 무작위 추출을 통해 20%인 1만 가구를 선정한다. 다음, 15~29세 인구비율을 25%로 추정하여 8,00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OES의 부가조사 방식의 이중추출법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지역별, 연령대별 패널분포가 모집단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졸자직업이동의 경우에도 한국교육개발원의 졸업자취업통계조사에서 파

〈표 2-8〉 표본추출

ID	조사명	복수 패널	모집단	표집틀	표집방법	조사대상	표본수
1	청소년 패널	중2	전국 중2 청소년(2003)	해당연도 교육통계연보	층화다단계 집락표집	중2 학생, 학부모(최초)	3,449명
		초4	전국 초4 청소년(2004)			초4 학생, 학부모(최초)	2,844명
2	교육 종단 연구	-	전국 중1 학생(2005) 전국 중학교	교육통계연보 (학교명부)	다단계층화 군집추출법	학생, 학교, 학부모, 학교장, 교사	학생 6,908명 학부모, 학교 장, 교사 등
3	교육 고용 패널	-	전국 중3, 고3 학생(2004)	교육통계연보 (전국 중·고등학교 학교명부)	층화집락 추출법	학생(중3, 고3), 보호자, 학교 (행정, 담임)	학생 6,000명, 보호자, 학교
4	청년 패널	YP 2001	만 15~29세 청년층(2001)	95년 센서스 표본조사구 - 산업직업별 고용조사 20%	산업직업별 고용조사 에서 이중 추출법	만 15~29세 청년	만 15~29세 8,296명(2001) 만 15~29세 5,956명(2003)
		YP 2007	만 15~29세 청년층(2007)	2006년 산업직업별 고용조사		만 15~29세 청년	만 15~29세 약 1만명 (2007)
5	대졸자 직업 이동	-	전국 전문대 및 대학졸업 자 (2004.8~ 2005.2)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2005)	다단계층화 추출법	전국 전문대 및 대학졸업자 약 5% (2004.8~ 2005.2)	25,802명 (2006)
6	여성 인력 패널	-	전국 100인 이상 기업의 대리급 2년차 이상 여성	한국신용평가 포함 100인 이상 기업	비례할당 표집	대리급 2년차 이상 여성	2,500명
7	고령화 연구 패널	-	만 45세 이상 중고령자 (1962년 이전 출생자)	인구주택총조사 (보통, 아파트 조사구)	집락층화 표집	45세 이상 중고령자	10,254명
8	장애인 고용 패널	-	15세 이상 법정장애인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재가 장애인 가구	층화계통 추출	15세 이상 재가장애인	5,000명

<표 2-8>의 계속

ID	조사명	복수 패널	모집단	표집틀	표집방법	조사대상	표본수
9	아동 패널	-	2008년 출생 신생아	250명 이상 분만 건수 (2006상반기) 산부인과의 3~4 월 출생아 명부	27개 병원 유충무선 표집 후 전수조사	신생아, 양육 부모	1,800명
10	인구 패널	-	전국가구	전국가구명부 (인구주택총조사)	확률비례 층화	미혼자, 기혼자, 청소년	12,000가구 (예정)
11	노동 패널	-	도시거주 가구 및 15세 이상 가구원	인구주택총조사 (1995) 표본조사구	2단계 층화집락 계통추출	조사대상 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	5,000가구
12	여성 가족 패널	-	전국 만19세~64 세 여성	인구주택총조사 (2005) 표본조사구	다단계층화 계통추출	표본가구내 가구원 중 만 19~64세 여성	8,500가구 (10,000명)
13	복지 패널	-	전국 가구	인구주택총조사 (2005)에서 국민생활실태 조사 (2006)	층화이중 추출	표본가구내 가구원 중 15세 이상 가구원	7,072가구 (14,463명)
14	의료 패널	-	전국가구	인구주택총조사 (2005)	층화추출	표본가구내	8,000가구 (실제 3,000가구)
15	노후 보장 패널	-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	인구주택총조사 (2000) 표본조사구	확률비례 층화	50세 이상 가구원	5,133가구
16	사업체 패널	-	상용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사업체기초통계 조사 공공기관(기획 예산처 기준)	사업장: 층화 공공기관: 전수	인사담당자, 노무담당자, 근로자 대표	4,275사업장 (일반 3,916, 공공 359)
17	인적 자본 기업 패널	-	근로자 100명 이상 일반기업	한국신용평가 (2005)	산업, 규모, 기업형태 고려 할당 표집	기업, 사업장, 근로자 (팀장, 팀원)	450기업 (205개 사업장), 근로자

악한 전국 전문대 이상 졸업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다단계층화추출법을 사용하고 있다.

비확률 표집법을 이용하고 있는 패널로는 여성인력패널, 아동패널, 인적자본기업패널이 있다. 여성인력 패널의 경우 전국 100인 이상 기업의 대리급 2년차 이상인 여성을 모집단으로 하고, 한국신용평가에 포함된 100인 이상 기업을 표집틀로 활용하였다. 그런 다음 업종, 종업원 규모, 여성관리자 비중을 고려한 비례할당 표집법을 사용하여, 2,500명의 대리급 이상 여성관리자를 추출하였다. 아동패널의 경우 2008년 출생아인 모집단의 정보를 담고 있는 표집틀이 없어, 일정 조건(상반기 250명 출산)을 갖춘 산부인과 27개를 유층무선표집한 다음 전수조사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 병원 표집단계에서 엄격한 확률표집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인적자본기업패널의 경우에도 산업, 규모, 기업형태를 고려한 할당표집법을 사용하고 있다.

4. 현장조사

가. 현장조사 진행

17개 패널 가운데 현장조사를 기관 자체에서 실시하는 경우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교육개발원뿐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경우에도 지금은 학교조직을 통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향후 전문실사업체 외주를 고려하고 있다⁹⁾. 이 두 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4개 패널과 아직 1차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아동패널을 제외하면, 나머지 12개 패널 모두 전문실사업체에 의뢰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표 2-9 참조). 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의 PSID는 자체조사, 캐나다의 SLID는 캐나다 통계청 지역사무소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독일의 GSEP와 영국의 BHPS는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현장조사에 대한 전문실사업체 의존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보

9) 교육중단연구의 경우, 학교단위 표집을 통해 조사를 진행한 관계로 제한된 중학교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하는 편이 있었으나, 고등학교 진학단계에서 학생들이 흩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전문실사업체를 통한 현장조사 진행을 고려 중이다.

〈표 2-9〉 현장조사 진행

ID	조사명	운영기관	실사기관	실사기관 변경	조사방법	답례품
1	청소년패널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미디어 리서치	없음	조사원면접 (학부모 전화)	1만원 상품권
2	교육종단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자체	없음	우편조사 (학교일괄 -성취도)	학생, 학부모, 교사 (2천원 상당)
3	교육고용패널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미디어 리서치	없음	CAPI, CATI	상품권
4	청년패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리서치 (YP2001)	변경 (자체-한국 -TNS)	조사원면접	상품권
			TNS (YP2007)		CAPI	
5	대졸자직업이동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리서치	비해당	조사원면접, CAPI(준비)	상품권 (1만 5천원)
6	여성인력패널	한국여성정책 연구원(여성가 족부 수탁)	KDN	없음	조사원면접	미정
7	고령화연구패널	한국노동연구원	TNS	비해당	CAPI	현금 (1~1.5만원)
8	장애인고용패널	한국장애인고용 촉진공단	한국갤럽	비해당	조사원면접 (예정)	-
9	아동패널	육아정책개발센터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10	인구패널	한국보건사회연 구원(보건복지 부 수탁)	자체	없음	조사원면접	-
11	노동패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리서치	없음	조사원면접, CAPI(시험)	물품(5천원)
12	여성가족패널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한국리서치	없음	CAPI	문화상품권
13	복지패널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자체	변경 (갤럽-자체)	조사원면접	상품권
14	의료패널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자체	없음	조사원면접	상품권
15	노후보장패널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원)	한국갤럽	없음	조사원면접	상품권(가구 당 3만원)
16	사업체패널	한국노동연구원	동서리서치	변경 (현대-동서)	CAPI	선물(넥타이)
17	인적자본기업 패널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KDN	없음	조사원면접	현금/상품권/ 선물

건사회연구원을 제외하면 자체 현장조사 조직을 보유하지 못한 연구소나 공단에서 패널조사를 운영하는 만큼 이러한 실사전문업체 의존은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으나, 민간업체의 현장조사 진행으로 인해 자료의 신뢰성 측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현재 12개 패널의 외주 민간업체 현황을 보면 한국리서치(3개), 한국갤럽(2개), 미디어리서치(2개), KDN(2개), TNS(2개), 동서리서치(1개)이다.

패널조사는 그 특성상 조사기획에서부터 자료 분석 및 활용의 단계까지 일관된 관리가 필요하다. 현장조사에 대한 적절한 관리지침을 만들어 체계적이고 일관된 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 즉, 양질의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과 실사기관의 안정적이고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장조사 기관 변경을 보면 길지 않은 조사 운영 기간 동안 청년패널이나 사업체패널과 같이 업체를 변경한 경우도 있었다. 장기적인 조사로 자료의 질을 위해서는 담당 업체 변경은 자료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현장조사의 자료수집 방법을 보면 전통적인 조사원 면접조사가 10개 패널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CAPI를 이용하거나 도입을 위해 준비하는 패널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학부모 대상 전화조사(청소년패널), 우편조사(교육중단연구), 학교대상 집단면접(교육중단연구), CATI(교육고용패널)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향후 자료입력 및 에디팅 프로그램의 활용이 증가하게 되면, 점차 전통적인 대인면접조사(PAPI)에서 벗어나 CAPI나 CATI 조사방법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해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PSID와 SLID는 CATI방식을 활용하고 있고, GSEP는 PAPI와 CAPI를 병행하고 BHPS는 CAPI를 활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장조사 응답 답례품은 대부분 조사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상품권 형태가 가장 많고 선물이나 현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외국의 경우 SLID는 면접원과 조사원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현물보상은 하지 않으나, PSID, GSEP, BHPS는 모두 현금이나 상품권, 쿠폰 등을 제공하고 있다.

나. 패널 관리방법

패널조사의 성공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표본의 탈락률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조사 치수가 증가함에 따라 탈락되는 표본이

〈표 2-10〉 응답자 관리방법

조사명	소식지 제공	정기 연락	친척/동료 연락처	이사시 주소파악	생일 카드	면접원 수기	분석결과 제공	온라인 커뮤니티	기타
청소년 패널	실시	실시	실시	실시	미실시	미실시	실시	실시	경품행사
교육종단 연구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실시	실시	미실시	실시	미실시	학교협력 교사 수당지급
교육고용 패널	미실시	미실시	실시	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실시	직업세계 책자제공
청년패널	실시	실시	실시	실시	실시	미실시	실시	실시	-
대졸자 직업이동	실시	실시	미실시	실시	실시	실시	비해당	실시	감사카드, 달력
고령화 연구패널	실시	실시	실시	실시	미실시	미실시	실시	미실시	달력제공
노동패널	실시	실시	미실시	실시	실시	실시	실시	미실시	협조공문, 감사편지, 감사선물
복지패널	실시	실시	실시	실시	미실시	미실시	실시	미실시	명절선물
노후보장 패널	실시	실시	미실시	실시	미실시	미실시	실시	실시	경품행사, 면접원 간담회, 감사편지
사업체 패널	실시	실시	미실시	실시	미실시	미실시	실시	실시	-
인적자본 기업패널	실시	실시	미실시	실시	미실시	미실시	실시	미실시	-
실시/합계	9/11	9/11	3/11	11/11	4/11	2/11	9/10	6/11	

특정 계층에 집중되면 표본의 대표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탈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활용된다. 예를 들면, PSID는 인터뷰시, 이사 후 주소 통보시, 참여 거부자가 참여 유도 인터뷰시에도 현금보상이 주어진다. 이 외에도 조사결과 요약 팸플릿 제공, 참여거부 가구에 대한 설득편지, 친구 및 친척의 이름 파악, 연구책임자의 면접원 애로사항 청취, 반송 가능 우편물 사용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된다.

아직 예비조사나 1차 본조사만 실시하고 있는 패널을 제외하고, 11개 패널에서 조사응답자 관리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방안을 보면, ‘이사시 주소파악’은 모든 패널에서 실시하고 있고 ‘소식지 제공’, ‘정기적 연락’, ‘분석결과 제공’ 등은 대부분의 패널에서 실시하고 있다(표 2-10 참조).

반면에 ‘평소 친척이나 직장동료 연락처 파악’, ‘생일축하카드 발송’은 상대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고, ‘온라인 커뮤니티’는 11개 패널 중 6개에서 제공하고 있다. 기타 응답자 관리 방법으로는 경품행사, 감사편지(카드), 달력제공, 명절선물 등이 응답되었다. 우리의 경우 전문실사업체를 통해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응답자인 패널 관리업무도 해당 업체를 통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민간기업의 경우, 이윤추구로 인해 응답자 관리를 소홀히 할 개연성이 항상 존재한다. 예컨대 연간 인구이동률이 20%에 달하는 우리 사회에서 이사시를 대비해 친척 및 동료 연락처 파악은 필수적인데, 이를 이행하는 않는 패널도 적지 않다. 이는 결국 표본탈락의 가능성을 높여 표본의 대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 패널유지율

표본유지율을 알아보기 위해 1차조사 응답률, 표본유지율 및 항상응답률(always in)을 조사하였다. 표본유지율은 1차 원표본 대비 해당 차수 표본유지율을 의미하고, 항상응답률은 모든 조사차수에 빠지지 않고 응답한 응답자 비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2차년에는 표본유지율과 항상응답률이 동일하지만 이후에는 유지율보다 항상응답률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표본유지율은 조사단위에 따라 기준이 계산되며, 가구단위의 경

우 모든 조사대상 가구원이 응답하지 않아도 가구주가 조사되면 일반적으로 응답가구로 간주된다.

먼저 개인 및 가구패널의 1차 조사 응답률¹⁰⁾을 보면, 교육종단연구의 99.6%에서 대졸자 직업이동의 62.2% 등 다양한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현장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교육종단연구의 경우, 표집된 학교를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기 때문에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1차 조사시 학교단위 조사를 실시한 청소년 패널(중 2패널)의 1차 응답률은 66.3%로 낮은 편이다. 대졸자 직업이동의 경우 사전접촉을 통해 조사협조를 약속한 표본대비 실제 응답률이 62.2%이다. 1차 응답률이 가장 낮은 노후보장패널은 42.7%로, 이는 매우 엄격한 표본선정 기준을 적용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나머지의 경우, 1차 조사에서 응답률을 산정할 수 없었거나 혹은 계산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주로 70~80% 수준으로 해외 수준과 유사하다. 예를 들면, 고령화연구패널의 경우 1차 본조사의 응답률이 70.7%(가구기준)이고, 개인 기준으로는 89.2%이다. 유사한 외국 패널의 경우 미국 HRS(Health and Retirement Survey, 1992)는 가구기준 80.2%, 개인기준 81.6%이고, 영국의 ELSA(2004)도 각각 69.9%, 96.5% 수준이다(한국노동연구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팀, 2007).

표본유지를 언급에 앞서 알아둘 것은 3개의 패널, 즉 청년패널, 복지패널, 사업체패널이 1차 본조사 후에 다시 원표본을 재구성했다는 사실이다. 청년패널의 경우 2001년에 본조사를 시작했으나 2002년에 원표본을 재구성하여, 2차년도에 구축된 5,956명을 원표본으로 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체패널의 경우에도 WPS2002와 WPS2003을 동일 표본으로 조사한 후에 2005년에 표본을 개편하여 WPS2005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복지패널도 ‘차상위·빈곤층 패널사업’, ‘저소득층자활사업실태조사’, 서울대학교의 ‘한국복지실태조사’를 2006년에 통합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복지패널은 1차년도 본조사가 2006년이고, 청년패널(YP2001)은 2001년과 2002년 두 가지 기준으로 유지율을 작성하였고, 사업체패널의 경우 1차 응답률은 WPS2005년 기준이고, 2

10) 미국 PSID, 독일 GSEP, 영국 BHPS의 1차년도 응답률은 각각 76%, 65%, 70%이다(강석훈, 1998).

차년도는 WPS2003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본조사가 2차 이상 진행된 9개 패널을 대상으로 패널유지율과 항상 응답률을 보면, 외국과 마찬가지로 개인패널의 경우 패널유지율이 전체적으로 높고, 가구패널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¹¹⁾. 청소년패널과 교육중단연구의 경우 학교단위 표집을 하고 있어 2차 표본유지율이 90%를 상회하고 있고, 교육고용패널의 고등학교 3년 패널의 경우 군입대로 인해 조사가 불가능한 표본이 3차 이후 급격히 증가해 3차년도 표본유지율이 68.2%로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조사불능 사례를 제외한 유효표본의 유지율은 2차 97.0%, 3차 75.4%이다. 대졸자직업이동의 2차 표본유지율은 88.9%로 높은 편이다. 다만, 청년패널의 경우 2002년을 기준으로 하면 표본유지율이 3차 85.8%, 6차 75.8%로 큰 문제가 없으나 2001년 원표본을 기준으로 하면 표본탈락이 심각한 수준이다. 그리고 모든 차수에 응답한 비율이 5차년도에 이미 54.1%로 표본의 대표성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가구패널의 경우 패널유지율이 이미 국제적 수준으로 평가되는 노동패널을 제외하면 3차 이상의 표본유지율에 대한 정보가 없어 아직 평가하기는 이르다. 10차까지 조사가 진행된 노동패널의 경우 외국의 가구패널과 유사하게 3차년도 이후 70%의 안정적인 패널유지율을 보이고 있다¹²⁾. 다만, 항상응답률이 9차년도에 55.7%로 1차~9차 모두에 응답한 가구가 원표본의 과반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표본 확대나 개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전체적인 표본유지율이 높은 수준이 아니고, 또한 패널관리에 대한 노력이 철저하지 못해 향후 패널유지율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과제이다.

11) 가구단위 조사인 미국의 PSID의 경우 10차 표본유지율이 70%이고, 개인단위 조사인 NLSY의 10차 표본유지율은 90.2%로 개인표본의 유지율이 뚜렷이 높다(신동균, 1998).

12) 외국의 초기 5년간 응답률 비교 (단위: %)

구분	미국 PSID	독일 GSEP	영국 BHPS
2차 응답률	89	88	88
3차 응답률	97	91	90
4차 응답률	97	94	95
5차 응답률	98	92	95

주: 전년도 응답가구 중에서 응답률을 의미함.

자료: 강석훈(1998).

<표 2-11> 표본유지율 및 항상응답률(always in)

(단위: %)

조사명	복수	1차 응답률	구분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청소년 패널	중2 패널	66.3	표본유지율	92.4	90.6	90.5					
			항상응답률	92.4	87.5	84.4					
	초4 패널	81.0	표본유지율	95.2	94.0						
			항상응답률	95.2	91.7						
교육중단 연구	-	99.6	표본유지율	99.3	98.8						
			항상응답률	97.1							
교육고용 패널	-	무응답	표본유지율	87.6	68.2						
			항상응답률 (유효기준)	90.4	65.3						
청년 패널	YP 2001 기준	74.9	표본유지율 (2001기준) (2차 기준)	71.8	61.6	60.3	57.5	54.4			
			항상응답률	82.1	70.1	59.4	54.1				
대졸자 직업이동	-	62.2	표본유지율	88.9							
			항상응답률	88.9							
노동 패널	-	75.5	표본유지율	87.6	80.9	77.3	76.0	77.2	77.3	76.5	76.5
			항상응답률	87.6	77.9	72.3	65.5	61.7	59.3	57.3	55.7
복지 패널	-	무응답 (미산정)	표본유지율	92.1							
			항상응답률	92.1							
노후보장 패널	-	42.7	표본유지율	89.0							
			항상응답률	89.0							
사업체 패널	-	53.6 (2005)	표본유지율 (2003)	80.1							
			항상응답률	80.1							

주: 조사진행 차수가 2차 미만인 패널은 분석에서 제외함.

5. 패널자료 활용

가. 연구결과 활용

본격적으로 중단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4차 이상 조사가 진행된 패

널이 노동패널, 청소년패널, 청년패널, 교육고용패널이다. 자료생산 후 실제 분석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아직은 본격적인 연구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초기 패널이 대부분이다. 여하튼 생산된 패널자료를 활용해서 진행된 연구결과물을 보면 패널조사의 차수(wave)에 정비례해서 논문 및 보고서 산출물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 차수가 10차인 노동패널의 경우 논문 415편이 나왔고, 사업체패널(6차)도 논문 87편, 보고서가 23권이고, 청소년패널(5차)은 논문 200편, 보고서가 12권이 나왔다. 하지만, 패널 조사자료의 본래적 특징인 종단분석을 실시한 사례는 청년패널의 경우만 13편으로 응답했고, 사업체 패널은 논문 87건 중에서 종단분석을 실시한 논문은 1편이라고 응답했다. 다른 패널에서는 파악하지 않고 있거나 응답을 기피하였다.

또한 패널조사의 분석결과에 근거해서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친 사례나 다른 조사설계와는 달리 패널조사로 설계함으로써 관련분야에 기여한 내용을 질문하였다. 왜냐하면, 모든 패널조사들이 출발 시점에서 패널설계를 통해 정책 과제에 대한 평가나 점검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횡단면 조사나 횡단면 반복조사에 비해 관련 분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응답결과를 보면(표 2-12 참조), 청소년패널은 조사내용 전반에 걸쳐 종단적 변화실태 파악이 가능하고 그 원인 진단이 가능해졌으며, 나아가 정책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기본계획 수립 및 조사내용이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청년패널은 패널설계를 통해 청년의 미취업 탈출시기, 노동시장 진입 소요시간, 첫 직장 등에 대한 측정이 가능해졌다고 답했다. 보다 실질적으로 여성가족패널의 경우 예비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여성비정규직 모성보호 현안 정책’에 기여했고, 사업체패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실태조사」로 육아휴직제도 개선과 「비정규직 수요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비정규직 관련 입법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사업체패널은 또한 향후 비정규직법 관련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관련 분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노동패널의 경우 응답은 하지 않았지만, 노동 관련 분야 정책 결정에 다양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패널조사의 역사가 짧은 점을 고려할 때, 아직은 관련 분야 기여도나 정책적 활용도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패널조

〈표 2-12〉 패널조사의 기여점 및 정부정책 활용사례

조사명	패널조사의 기여점	정부정책 활용사례
청소년 패널	조사영역(일, 진로, 비행, 여가, 사회적 관계 등) 관련 종단적 변화 실태 및 원인 진단 추적	청소년 기본계획 수립시 참고, 조사영역(일, 진로, 비행, 여가, 사회적 관계 등) 관련 참고자료 활용
청년 패널	미취업 탈출시기, 노동시장 진입 소요시간, 첫 직장 근속기간 측정으로 이동경로 추적가능	무응답
여성가족 패널	비해당	예비조사 결과로 여성비정규직의 모성보호 현안 정책에 기여
사업체 패널	비정규직법 관련 영향에 대한 분석은 2008년에 진행 예정	WPS2002의 육아휴직실태조사는 육아휴직제도 개선에 기여, WPS2002, 2003의 비정규직 수요 조사는 비정규직 관련 입법에 활용

사의 장점과 외국의 경우를 볼 때, 향후 패널조사의 분석결과는 관련 분야 연구나 정책적 활용의 잠재력이 충분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패널연구자들이 자료생산 및 분석에 대한 관심도는 높으나, 상대적으로 분석결과의 기여나 정책적 활용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다는 사실이다. 정책적 활용 측면은 연구기관의 관심 범위를 넘어서는 영역으로 이는 관련분야 학자나 정책입안자의 몫으로 간주하고, 연구기관은 자료의 생산 및 보고서 작성을 주된 업무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는 자료 활용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료 활용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향후 패널자료를 이용한 종단분석 기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패널자료를 활용 가능하게 된 지가 오래되지 않아 아직 패널자료를 적절하게 생성하고 다양한 종단분석을 할 수 있는 저변이 취약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로 인해 양질의 자료를 적절하게 분석,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취약해, 기존의 횡단적 분석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패널자료 생성 및 분석기법에 대한 교육기반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표 2-13〉 자료활용 및 제공

ID	조사명	차수	논문	보고서	종단분석	원자료 제공	이용자 요구반영	
1	청소년패널	5	200	12	미파악	학술대회 참가자 CD판매	자문회의/학술대회/데이터이용자의견	
2	교육종단연구	3	34	2	비해당	자료활용 계획서 제출 및 동의서 신청 후 제공	학술대회/전문가협의/세미나	
3	교육고용패널	4	68	5	미파악	무료제공 (웹사이트)	학술대회/전문가협의/세미나	
4	청년패널	7	62	10	13		고객만족 설문조사	
5	대졸자직업 이동	2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료제공 (웹사이트)	전문가의견수렴/만족도 조사	
6	여성인력패널	1	비해당					
7	고령화연구 패널	2	0	무응답	0	홈페이지	전화/이메일	
8	장애인고용 패널	0	비해당					수요조사/학술대회/간담회
9	아동패널	0	비해당					
10	인구패널	0	비해당					
11	노동패널	10	415	미집계	미집계	홈페이지 무료제공	학술대회	
12	여성가족패널	1		1			전문가의견수렴/자문기획단회의	
13	복지패널	2	6	3	비해당	홈페이지 무료제공	홈페이지	
14	의료패널	1	비해당					
15	노후보장패널	3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학술대회	전문가자문회의/학술대회	
16	사업체패널	6(3)	87	23	1	홈페이지 제공 (유상/무상)	홈페이지/학술대회	
17	인적자본기업 패널	2	28	4	비해당	CD유료판매	학술대회/전문가회의/워크숍	

나. 자료이용

정부 예산을 투입하여 생성된 패널자료는 관련 연구분야 종사자들이 다양하게 분석,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료의 생산단계에서 잠재적 자료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원시자료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먼저, 이용자 요구 및 의견 수렴 방법을 알아본 결과, 조사결과 및 자료 이용자 집단의 요구를 반영하는 경로로 대부분의 패널에서 전문가 자문회의, 학술대회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경우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과 대졸자 직업이동으로 2개 패널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원시자료의 제공방법을 보면,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CD 형태로 유료판매하거나 혹은 학술대회를 통해서만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예외적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은 유료판매 혹은 신청 후 기관 동의하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 활용의 활성화와 원시자료의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하면, 향후 이용자들이 손쉽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이드와 함께 무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단계별 업무분장 및 문서화

가. 업무분장

전문실사업체를 통해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패널 운영 업무 전반에 대한 연구기관과 실사업체 간의 업무분장 실태를 알아보았다. 계획수립, 표본설계, 설문설계, 조사원교육, 조사진행 및 관리, 입력 및 편집, 오차측정, 집계, 표본관리 전반에 걸쳐 수행여부 및 업무분담을 질문하였다. 현장조사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운영 패널은 모든 패널 업무를 연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분담해서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중단연구의 경우 조사진행과 표본관리는 학교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료입력 및 에디팅은 외주업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14 참조).

〈표 2-14〉 단계별 업무분장

ID	조사명	계획 수립	표본 설계	설문 설계	조사원 교육	조사진 행/관리	입력 및 편집	오차 측정	집계	표본 관리
1	청소년 패널	연구 기관	연구 기관	연구 기관	공동	공동	공동	공동	공동	공동
2	교육중단 연구	연구 기관	연구 기관	연구 기관	연구 기관	공동 (학교)	공동 (외주)	연구 기관	연구 기관	공동
3	교육고용 패널	연구 기관	연구 기관	연구 기관	공동	공동	공동	공동	공동	공동
4	청년패널	연구 기관	한국조사연구학회	연구 기관	연구 기관	연구 기관	공동	연구 기관	연구 기관	연구 기관
5	대졸자 직업이동	연구 기관	연구 기관	연구 기관	공동	공동	공동	연구 기관	연구 기관	공동
6	여성인력 패널	연구 기관	연구 기관	연구 기관	공동	공동	실사 기관	실사 기관	실사 기관	실사 기관
7	고령화 연구패널	연구 기관	연구 기관	연구 기관	공동	실사 기관	공동	연구 기관	연구 기관	실사 기관
8	장애인 고용패널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9	아동패널	연구 기관	연구 기관	연구 기관	연구 기관	실사 기관	실사 기관	실사 기관	실사 기관	실사 기관
10	인구패널	연구 기관	연구 기관	연구 기관	연구 기관	연구 기관	연구 기관	연구 기관	연구 기관	연구 기관
11	노동패널	연구 기관	연구 기관	연구 기관	공동	공동	공동	연구 기관	공동	공동
12	여성가족 패널	연구 기관	대한통계협회	연구 기관	공동	공동	공동	공동	공동	공동
13	복지패널	연구 기관	연구 기관	연구 기관	연구 기관	연구 기관	연구 기관	연구 기관	연구 기관	연구 기관
14	의료패널	연구 기관	연구 기관	연구 기관	연구 기관	연구 기관	연구 기관	연구 기관	연구 기관	연구 기관
15	노후보장 패널	연구 기관	연구 기관	연구 기관	공동	공동	공동	연구 기관	실사 기관	실사 기관
16	사업체 패널	연구 기관	연구 기관	연구 기관	실사 기관	실사 기관	연구 기관	연구 기관	실사 기관	실사 기관
17	인적자본 기업패널	연구 기관	연구 기관	연구 기관	공동	공동	공동	공동	공동	공동

주: 가장 최근 조사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나머지 13개 패널의 경우 계획수립, 표본설계, 설문설계 단계는 연구기관에서 주로 하지만, 조사원교육, 조사진행 및 관리, 입력 및 편집, 오차측정, 통계집계, 표본관리는 연구기관과 실사기관이 공동으로 하거나 실사기관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에 살펴볼 연구기관 인력현황과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면, 연구기관과 실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업무는 실사기관에 의해 주로 수행될 개연성이 더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현장조사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조사설계나 기획 및 분석 기능은 주로 연구기관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나머지 현장조사 관련 전반적인 업무는 실사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나. 문서 작성

일정 주기를 두고 장기적인 조사를 수행하는 만큼, 패널조사 관리의 효율성과 향후 개선을 위해서는 패널업무 전반에 걸친 문서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패널조사에서 문서화 대상은 시험조사보고서, 실사계획 보고서, 면접원 매뉴얼, 실사보고서, 내검보고서, 오차측정 보고서, 최종 결과보고서, 표본관리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면접원 매뉴얼과 최종결과 보고서는 모든 패널에서 문서화 작업을 하고 있으나, 오차측정 보고서는 6개 패널에서, 시험조사보고서는 4개 패널에서 작성하지 않고 있다(표 2-15 참조). 대표적 패널인 노동패널도 오차측정보고서는 작성하지 않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측정 도구, 조사방법, 면접원 교육 등 다양한 문제를 점검, 제어하기 위해 실시되는 시험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패널로는 예비조사를 하지 않았던 여성인력패널, 사업체패널과 함께 복지패널, 노후보장패널도 시험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서화 작성주체를 보면 실사계획보고서는 연구기관(3개)보다 실사업체(5개) 또는 공동(3개)으로 작성하는 사례가 더 많았고, 내검 보고서와 표본관리보고서도 실사업체에서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현장조사 전반에 대해서는 실사기관 의존도가 높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2-15〉 문서작성 여부 및 주체

조사명	시험조사 보고서	실사계획 보고서	면접원 매뉴얼	실사 보고서	내검 보고서	오차측정 보고서	최종결과 보고서	표본관리 보고서
청소년 패널	연구기관	연구기관	실사기관	실사기관	실사기관	미작성	연구기관	실사기관
교육 종단연구	연구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미작성	미작성	미작성	연구기관	연구기관
교육고용 패널	공동작성	공동작성	공동작성	공동작성	공동작성	연구기관	연구기관	공동작성
청년패널	실사기관	실사기관	공동작성	실사기관	연구기관	미작성	연구기관	공동작성
대졸자 직업이동	연구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실사기관	공동작성	공동작성	연구기관	실사기관
여성인력 패널	미작성	실사기관	실사기관	실사기관	실사기관	실사기관	연구기관	미작성
고령화 연구패널	실사기관	실사기관	공동작성	실사기관	공동작성	미작성	연구기관	실사기관
이동패널	연구기관	실사기관	공동작성	실사기관	실사기관	미정	연구기관	미정
노동패널	연구기관	공동작성	공동작성	실사기관	미작성	미작성	연구기관	실사기관
복지패널	미작성	미작성	연구기관	미작성	실사기관	미작성	연구기관	미작성
노후보장 패널	미작성	미작성	연구기관	실사기관	실사기관	미작성	연구기관	실사기관
사업체 패널	미작성	실사기관	연구기관	실사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실사기관	실사기관
인적자본 기업패널	공동작성	공동작성	공동작성	공동작성	공동작성	공동작성	공동작성	공동작성
작성 기관별 현황	연구: 5 실사: 2 공동: 2 미작성: 4	연구: 3 실사: 5 공동: 3 미작성: 2	연구: 5 실사: 2 공동: 6 미작성: 0	연구: 0 실사: 9 공동: 2 미작성: 2	연구: 2 실사: 5 공동: 4 미작성: 2	연구: 2 실사: 1 공동: 2 미작성: 6 미정: 1	연구: 11 실사: 1 공동: 1 미작성: 0	연구: 1 실사: 6 공동: 3 미작성: 2 미정: 1

7. 예산 및 인력

가. 패널 예산

마지막으로 17개 패널 운영과 관련된 예산 및 인력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장기적인 중단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과 적정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먼저 예산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패널 전체예산(사업비)은 2000년 이후 2년마다 2배 이상 증가하는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998년 438백만원, 2000년 454백만원, 2002년 948백만원, 2004년 2,579백만원, 2006년 7,368백만원, 2007년 패널예산은 11,158백만원이다. 2007년을 기준으로 예비조사 단계인 ‘아동패널’과 ‘인구패널’ 예산을 제외한 10,828백만원을 15개 패널로 나눠보면, 본조사가 진행 중인 15개 패널의 평균 예산은 약 722백만원 수준이다. 더욱이 패널예산은 사업비만을 의미하므로 패널 운영기관 연구인력의 인건비까지 계산하면 현재 사업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예산증가의 원인은 기존에 운영 중인 패널 예산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신규 패널이 생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패널’과 ‘교육중단연구’ 패널을 제외하면 운영 중인 모든 패널사업의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노동패널’의 경우 1998년 438백만원에서 2007년 850백만원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이와 같이 기존 운영 패널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예산증가와 함께 복수의 패널운영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지속적인 신규 패널의 구축으로 예산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2008년에도 ‘장애인고용패널’과 ‘아동패널’의 본조사가 예정되어 있고, 여러 정부부처 및 연구소에서 추가적인 패널운영 계획을 시도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러한 예산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패널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의 성격에 따라 구분해 보면 일반예산이 11개 사업, 기금예산이 6개 사업이다. 기금사업으로는 고용보험기금을 사용하는 ‘청년패널’, ‘대졸자직업이동’, ‘고령화연구패널’, ‘노동패널’과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노후보장패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장애인고용패널’이 있다. 예산 성격에 따른 패널당 평균예산을 보

〈표 2-16〉 패널조사 예산

(단위: 백만원)

조사명	예산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비고
청소년 패널	일반회계	-	-	-	-	-	150	500	550	470	439	
교육 중단연구	일반회계	-	-	-	-	-	-	55	320	279	250	
교육고용 패널	일반회계	-	-	-	-	-	500	500	500	500	800	
청년 패널	기금 (고용보험 기금)	-	-	-	100	310	320	321	330	400	779	
대졸자 직업이동	기금 (고용보험 기금)	-	-	-	-	-	-	-	-	1,854	1,761	
여성인력 패널	일반회계	-	-	-	-	-	-	-	-	-	238	돌봄 종사자 조사 포함
고령화 연구패널	기금 (고용보험 기금)	-	-	-	-	-	-	-	760	769	769	
장애인 고용패널	기금 (장애인고 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	-	-	-	-	-	-	-	-	570	
아동 패널	일반회계	-	-	-	-	-	-	-	-	-	50	
인구 패널	일반회계	-	-	-	-	-	-	-	-	-	280	
노동 패널	기금 (고용보험 기금)	438	390	454	609	638	650	673	688	846	850	2005년 이 전 예산은 현장조사 비용
여성가족 패널	일반회계	-	-	-	-	-	-	-	-	150	770	
복지 패널	일반회계	-	-	-	-	-	-	-	-	1,300	1,452	

〈표 2-16〉의 계속

(단위: 백만원)

조사명	예산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비고
의료 패널	일반회계	-	-	-	-	-	-	-	-	-	500	
노후보장 패널	기금 (국민연금)	-	-	-	-	-	-	-	570	-	700	
사업체 패널	일반회계	-	-	-	-	-	180	230	-	500	500	
인적자본 기업패널	일반회계	-	-	-	-	-	-	300	300	300	450	
합계		438	390	454	709	948	1,800	2,579	4,018	7,368	11,158	

주: 1) 예산은 연구인력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응답한 것임.
2) 예산구분은 최근 예산의 성격으로 구분한 것임.

면 기금이 904백만원, 일반예산이 568백만원(아동패널은 예비단계로 제외)으로 기금예산으로 운영하는 패널의 예산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규모만을 보면 ‘대졸자직업이동’의 경우 대규모 표본을 구성하면서 2007년 예산이 1,761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였고, 같은 시기에 ‘복지패널’은 1,452백만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나. 패널 인력현황

한편, 패널사업에 관계하고 있는 연구기관의 인력은 17개 사업에 총 88명으로 단위 패널당 평균 5.2명(최소 3명~최대 10명) 수준이다. 연구인력의 학력을 보면 박사가 36명으로 전체 연구인력의 41%를 차지하여 패널당 2명(2.1명) 가량이 투입되고 있으며, 석사 이하 연구인력은 전체 패널에서 52명인 59%로 패널당 3명(3.1명) 가량이다. 연구인력 교체 등을 고려하면 패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 박사급 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들을 고용형태별로 나눠보면 정규직이 65명(74%), 비정규직이 23명(26%)으로, 패널당 평균 정규인력 3.8명, 비정규인력 1.4명으로 연구진

〈표 2-17〉 패널별 인력현황

ID	조 사 명	총인원	박사	석사 이하	정규직 (%)	비정 규직	정규직 업무 참여도	박사 경력 평균	석사 경력 평균	책임자 교체
1	청소년 패널	6명	3명	3명	3명 (50%)	3명	70%	48월	8월	없음
2	교육 중단연구	4명	2명	2명	2명 (50%)	2명	50%	35.5월	28월	2번
3	교육고용 패널	7명	2명	5명	4명 (57%)	3명	38%	41월	38.2월	1번
4	청년 패널	3명	1명	2명	3명 (100%)	0명	73%	72월	36월	3번 이상
5	대졸자 직업이동	4명	2명	2명	4명 (100%)	0명	65%	8.5월	44.5월	없음
6	여성인력 패널	4명	3명	1명	4명 (100%)	0명	25%	8월	0월	없음
7	고령화 연구패널	4명	1명	3명	4명 (100%)	0명	95%	58월	30월	없음
8	장애인 고용패널	4명	2명	2명	4명 (100%)	0명	100%	6월	7월	없음
9	이동 패널	3명	2명	1명	3명 (100%)	0명	25%	24월	12월	없음
10	인구 패널	5명	3명	2명	5명 (100%)	0명	25%	28월	12월	없음
11	노동 패널	6명	1명	5명	6명 (100%)	0명	92%	43월	40.8월	3번 이상
12	여성가족 패널	4명	2명	2명	3명 (75%)	1명	30%	24월	45월	1번
13	복지 패널	10명	2명	8명	5명 (50%)	5명	50%	12월	12월	없음
14	의료 패널	7명	4명	3명	5명 (71%)	2명	50%	13월	10월	없음
15	노후보장 패널	5명	2명	3명	2명 (40%)	3명	100%	49월	0월	3번 이상
16	사업체 패널	4명	1명	3명	4명 (100%)	0명	83%	12월	21월	2번
17	인적자본 기업패널	8명	3명	5명	4명 (50%)	4명	36%	31월	24월	1번
	합계 (평균)	88명 (5.2명)	36명 (2.1명)	52 (3.1명)	65명 (3.8명)	23명 (1.4명)	-	-	-	-

주: 외부 공동 혹은 객원 연구원은 제외한 운영기관 내부 인력임.

이 구성되어 있다. 패널사업의 경우 장기간의 안정적 운영이 중요하므로 비정규인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단일 패널운영팀 인력의 정규직 비율이 70%에 미치지 못하거나 3명 이하인 경우는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나마 많지 않은 정규직 인력의 업무참여도를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노후보장패널, 장애인고용패널과 같이 공단에서 운영하는 패널의 경우 100%로 패널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으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운영하는 3개 패널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패널업무 외에 다른 연구업무와 병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정규인력의 패널업무 참여도가 50% 이하인 패널은 9개로 모두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연구진들은 패널사업 외의 다른 연구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연구기관의 경우 한국노동연구원과 같이 패널전담 사업팀을 꾸려 패널운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연구자들의 패널조사 관련 경력을 보면, 연구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박사인력의 평균 경력이 1년 이하인 경우가 5개 패널(대졸자직업이동, 여성인력패널, 장애인고용패널, 복지패널, 사업체패널), 2년 이하가 3개 패널(아동패널, 여성가족패널, 의료패널)로 나타나, 패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인력에 의해 패널이 운영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패널조사의 역사가 길지 않고 단시간에 급속히 확산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패널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부족은 패널자료의 질과 결과 활용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나 장기적인 종단연구인 패널조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패널 운영기간이 길지 않음에도 연구책임자의 잦은 교체 또한 문제이다. 전체 패널에서 연구책임자 교체가 있었던 패널이 8개나 되고 청년패널, 노후보장패널, 노동패널은 3번 이상 연구책임자를 교체한 경험이 있다. 이와 같이 패널운영 경험 부족과 연구책임자의 잦은 교체로 인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하다.

제5절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패널조사 조정기구 부재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상황에서, 어떤 기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모든 패널에 대해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개별 연구기관이나 정부부처에서 패널사업 발굴 및 기획, 조사수행, 자료처리 및 통계작성 등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패널사업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공동관리, 지식공유 및 중복사업 조정 등의 종합적 관리를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재 패널조사와 관련해서 제기된 많은 문제, 즉 유사중복, 복수패널 증가, 예산 급증 등의 문제는 이러한 조정기구의 부재에서 초래된 면이 있다.

현재 패널운영 실태파악 결과를 보면, 17개 패널 중에서 13개 패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2개 패널은 해당부처의 위탁과제이고 11개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4개 패널은 공단이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기금예산을 통해 운영하고 있어 패널조사에 대한 타당성 검증은 운영기관 자체나 부처에서 결정하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11개 패널에 대한 현황분석을 실시하였으나, 6개 패널이 분석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이와 같은 상황에 연유한 것이다.

현재와 같이 정부부처나 연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근거해서 신규패널을 구축하거나 복수의 패널을 쉽게 허용하게 되면, 패널의 난립으로 인한 예산증가의 문제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패널이 만료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서도 만료기간을 가능한 한 명시하고, 만료시점에서 엄격한 심사에 근거해 패널 재구축 여부에 대한 판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 코호트 패널의 경우 복수패널 설계가 일반적으로 향후에도 동일 패널사업명으로 여러 개의 복수 패널이 동시에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에도 패널 조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통해

허용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자료 활용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경우 패널 조사가 빠른 시간에 난립되었고, 어느 정도 유사중복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경제나 사회현상의 본질적 특성의 하나인 상호관련성에서 보면 유사중복 문제는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다. 또한, 자료 축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초기단계에 있는 패널이 다수인 상황에서 패널자료 분석을 통한 결과물 산출은 아직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 3~4차 이상 조사자료를 축적한 패널을 중심으로 자료활용 실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문제들에 대한 단기간의 인위적 개입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일시적 개입을 통해 예산집행을 통제하거나 패널을 중단시킬 경우, 이미 투입된 예산은 별다른 산출물이 없는 상황에서 손실 비용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존 패널에 대한 가장 실질적인 조정방안의 하나는 독립적인 조정 및 관리기구를 통해 연구 결과물에 대한 검증을 통한 엄격한 연구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개별 패널조사에 대한 검증은 독립적인 조정기구나 전문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향후 연구결과물에 대한 검증을 통해 자료의 질이 우수하고 정책활용도가 높고 관련분야 연구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패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육성책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반대로 자료의 질적 수준이 낮거나 활용도도 낮은 패널은 장기적인 계획하에 소멸 혹은 통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체 패널에 대한 조정, 심의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만 지금과 같이 무정부주의적 패널운영으로 발생하는 폐단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조정기구는 특정 정부기관이나 연구소에 의해 주도되기보다는 패널운영기관, 학계, 정부기관 등이 중심이 되어 자율적이며 독립적인 기관으로 구성,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패널조사의 중복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기금 제공시 예산을 통한 조정기능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7).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전체 패널에 대한 조정이나 신규패널 타당성 검증, 중단연구 설계의 타당성, 패널조사 주기의 타당성 검토, 패널 운영 과정의 적정성, 기존 패널 사업간 유사중복 문제, 기한이 만료된

패널에 대한 패널 재구축 여부, 패널조사 연구결과 활용도 평가, 패널조사 운영 전반과정에 대한 지식 공유 등이 이 조정기구의 주요한 기능이 될 것이다.

2. 유사중복 문제

전체 패널조사를 조정하는 기구의 부재의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패널간 유사중복 문제이다. 패널연구와 관련해서 예외 없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도 패널간 유사중복 조사 문제이다. 현황과약 결과를 보면 중복가능성은 크게 4가지로 보이는데, 다수의 청소년 코호트 패널간 유사중복 문제, 중고령자 코호트 패널, 가구패널 내에서 일반패널과 특수패널의 유사중복 문제, 마지막으로 사업체패널의 유사중복 문제이다.

첫 번째로 청소년 코호트 패널간 유사중복 문제를 살펴보자. IMF 경제위기 이후 사회문제로 부각된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해서 청소년 생애주기에 대한 다수의 패널조사가 진행되었다. 청소년패널, 교육종단연구, 교육고용패널, 청년패널, 대졸자 직업이동 조사가 이에 해당된다. 여기서도 교육고용패널, 청년패널, 대졸자직업이동은 조사대상, 조사목적 및 내용에서 유사성이 확인된다. 이들 패널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는 중고령자 코호트 패널간 중복 문제이다. 고령화연구패널과 노후보장패널은 조사단위에서 차이가 있으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조사대상과 연구관심의 중복이 발견된다. 조사내용에 있어서도 중고령자의 소득, 자산, 지출, 은퇴계획, 복지, 가족관계, 건강 등으로 유사해 중복 문제 해결이 요구된다.

세 번째로는 가구패널에서 일반패널과 특수패널 사이의 유사중복 문제이다. 가구패널인 노동패널, 여성가족패널, 복지패널, 인구패널 등과 조사대상이 중복되고, 조사내용은 가구의 다양한 영역을 조사하고 있다. 일반패널과 특수패널의 조정문제는 충분한 자체적인 논의를 거쳐 실행되어야 하겠지만, 특수패널 중심으로 신규패널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패널의 해당 표본이나 조사내용을 일반패널에 포함시켜 진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가구패널인 노

동패널의 표본을 확충하고 일반 가구패널의 성격을 보다 강화하여, 향후 다양한 가구단위의 종단적 자료 요구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체패널간 중복 문제이다. 사업체패널과 인적자본기업패널은 동일한 사업체 조사로, 인적자본에 대한 관심은 공통적이거나 사업체패널의 조사범위가 더 포괄적이다. 하지만 사업체패널은 보다 노사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인적자본기업패널은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사업체패널이 두 개뿐인 관계로 상호 조정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

사실 패널의 통합이나 조정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는 연구기관간의 결단이 요구되는 문제이고, 연구의 관점에서 보면 자료의 시계열성 유지가 단절되면 기존 투입자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중복조사의 가능성이 있는 조사들도 또한 독립적인 조사영역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패널조사간의 조정은 앞에서 지적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패널조사 조정, 심의기구를 통해 장기적인 패널조사의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패널 운영인력의 전문성

노동패널, 청년패널 등을 제외하면 패널운영 역사가 매우 짧고 전문인력 확충이 없는 상태에서 패널조사가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초기 구축단계에서 비전문인력이 담당하게 됨으로써 많은 비용손실을 경험하였고, 지금도 일부 연구기관은 그런 경험을 반복하고 있다. 복지패널의 경우 ‘저소득층자활사업실태조사’(2003~06년)와 ‘차상위, 빈곤층패널사업’(2005~06년), ‘한국복지패널조사’ 등 3개 패널을 통합하여 재구축한 패널이다. 2006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업중단자의 실태파악과 교육지원을 위한 중단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이후 중단한 경험이 있고, 청년패널의 경우도 2001년도에 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차년도(2002년)에 다시 원표본을 재구성하는 과정상의 문제가 있었다. 심지어 한국노동연구원의 경우에도, 사업체패널 WP2002와 WP2003 패널을 구축하였으나 2005년에 원표본을 재구축한 경험이 있다. 패널자료의 특성상 한번 표본을 개편하게 되면, 자료의 시계열적인 연속성이 파괴되어

기존 자료는 실제로 폐기해야 한다.

패널자료를 분석하는 것과 패널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로 구축하는 일은 서로 다른 전문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패널조사에 대한 몰이해로 인하여 패널자료를 분석해 본 경험이 있는 연구자들이 각 기관에서 패널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대부분의 패널운영기관이 현장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민간 실사전문업체에 용역형태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수익 문제와 경험부족으로 인해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패널 운영인력에 대한 교육강화와 업무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 사실 우리의 패널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는 패널 전문인력의 문제이다. 물론, 실질적인 패널운영 역사가 10년 정도로 매우 일천한 우리 상황에서, 충분한 경험을 축적한 연구인력에 의한 패널운영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패널조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물을 효과적으로 분석,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급속하게 패널운영이 증가함으로 인해 많은 문제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판단된다.

그러한 연구인력조차도 업무 참여도가 낮은 것이 문제이다. 공단의 경우 별도 패널팀을 구성해 연구자들이 패널업무만 전담해 이 문제는 덜하다. 그러나 가장 많은 패널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패널팀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동연구원을 제외하면, 연구자들이 다른 복수의 연구업무에 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외부 전문실사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패널조사 관리 및 연구업무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연구기관에서 패널운영 경험의 축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배정시 패널 전담팀 구성을 의무화하고, 전담 패널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다른 연구업무 참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연구진의 패널업무 참여도를 높여야만 패널 운영경험의 축적 및 생산된 자료를 활용한 연구실적의 산출이 가능해질 것이다.

동시에 패널인력에 대한 교육 및 정보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

다. 국내에서 패널자료가 생성, 분석되기 시작한 역사가 길지 않다. 그리고 생성된 패널자료를 중단분석하여 정부정책에 활용된 사례가 아직은 충분하지 못한 형편이다. 즉,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생산된 자료를 아직은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국내에서 패널의 역사가 길지 않고, 중단자료 분석에 대한 지식의 축적이나 경험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 패널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원시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 분석방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아직 패널자료 분석이나 패널조사에 대한 교과서도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패널운영 기관 인력을 대상으로 패널자료 관리, 분석,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통계청 통계교육원에서 패널관련 세션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대학의 정식 커리큘럼에 패널조사에 대한 소개 및 분석방법에 대한 강의를 개설되어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패널 관련 자료 분석뿐만 아니라, 자료생성에 대한 경험적 지식도 동시에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패널자료 생성과 관련된 경험적 지식은 개별 패널운영 연구기관과 실사전문업체에 축적되어 있다. 신규로 패널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자문회의 정도를 통해 지식을 전수받고 있는 형편으로 조사진행 과정에서 많은 오류를 반복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자료생산 과정에 대한 축적된 경험적 지식을 공유한다면 경험부족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4. 패널자료 이용 활성화

많은 비용과 시간, 인력을 투입하여 산출되는 패널자료가 조사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분석을 통해 관련 분야 연구나 정책에 필요한 성과물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나 다른 조사설계에서 가능하지 않았던, 중단분석을 통해 정부정책의 효과나 인과관계 규명을 통해 패널자료의 장점이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의 패널조사는 해당 분야의 관련 정책에 대한 자료제공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목적 달성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는 있었으나 투입된 인력과 예산에 비하면

패널자료에 대한 종단적 분석이나 정책적 활용은 아직은 미약하고,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패널의 조사차수가 누적되지 않았고, 비교적 자료가 누적된 패널의 경우에도 아직은 종단분석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국내에서 패널조사의 역사가 짧고 패널자료를 활용한 종단분석에 대한 지식이 널리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이런 다양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여겨진다.

자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앞에서 지적한 연구기관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아직 패널자료와 같은 방대한 시계열적 자료를 분석하는 지식이 보편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우 제한된 연구자만 활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패널운영 연구기관 외에도 패널자료 활용에 대한 연구기반 확충이 요구된다. 점차 학계에서도 횡단분석보다 인과관계 규명이 명료한 패널자료의 이용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자료생성 및 분석방법에 대한 지식이 확산된다면 이용활성화는 급속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예산을 활용하여 생성된 자료인 만큼 연구기관 밖의 일반이용자들이 좀더 편리하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료이용 가이드와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패널조사의 중요한 목적은 대부분 관련 정부부처의 정책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나, 실제로 정책에 활용된 사례가 아직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 이유의 하나는 패널운영기관에서 자료 활용 사례의 관리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실제 그런 사례가 충분히 있어도 연구기관에서 자료생산만을 기관업무로 간주하는 관습이 지속되면, 패널조사의 유용성과 자원투입의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활용 사례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석훈(2001), “청소년패널조사 기초연구”, 「청소년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_____ (1998), “유럽의 패널조사 현황과 시사점: 가구패널조사와 국제비교학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 강석훈 외(1994), 「한국 가구 경제활동 연구: 대우패널 기초보고서 ①」, 대우경제연구소.
- 국민연금연구원 패널팀(1997), “국내외 패널 및 주요 사회조사 동향 분석”, Working Paper.
- 금재호(1998a), “노동관련 패널조사의 의의와 필요성”, 한국노동연구원.
- _____ (1998b), “패널조사의 응답자 관리”, 한국노동연구원.
- _____ (1998c), “패널예비조사의 목적과 내용”, 한국노동연구원.
- _____ (1998d), “캐나다의 노동패널조사”, 한국노동연구원.
- 김기현(2004), “일본 소비생활에 관한 패널조사(JPSE)의 소개”, 「노동정책연구」, 제4권 1호, 한국노동연구원, pp.1-22.
- 김미곤·여유진·이봉주 외(2006), 「2006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Korea Welfare Panel Survey(KWPS) Descriptive Report」,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장수(2007), “선거연구와 패널 여론조사: 2006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제8권 11호, pp.81-104.
- 김양분 외(2006),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ii)」, 한국교육개발원.
- _____ (2004), 「국가 수준의 종단적 교육조사 모형개발」, 한국교육개발원.
- 김해동 외(2001), 「청소년 교육·고용 패널자료 구축사업(II)」,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호기 외(2007), 「정부출연연구기관 패널사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남재량 외(2007), 「제8차(2005)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 남재량 외(2007), 「한국노동패널 1~8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한국노동연구원.
- 박수미 외(2006), 「여성가족패널조사: KLoWF -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an & Family」, 한국여성개발원.
- 백화중 외(2005), 「차상위·빈곤층 패널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 2005-27.
- 신동균(1998), “미국 패널데이터의 현황과 시사점 - PSID, NLSY, KHPS, KLIPS를 중심으로”, 한국노동패널연구 Working paper, 한국노동연구원.
- 이경상 외(2006),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 조사개요 보고서」,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삼식 외(2006), 「인구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호(2006), “서구 주요 패널의 조사전략 변화와 시사점”, 「패널연구」, 63, 한국노동연구원.
- 이지연(2005), 「가구조사자료의 종단화 방안」, 통계청.
- 장명립 외(2006), 「아동패널조사 모형개발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 장재호 외(2006), 「2005 청년패널 기초분석보고서 - 5차년도 자료분석」, 한국고용정보원.
- 재창균 외(2003), 「한국교육고용 패널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조병희 외(2006), 「청소년건강행태 패널구축방안 연구보고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한국청소년개발원(2002), 「2002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The Direction and Task of Korea Youth Panel Survey(KYPS) 2002」.
- 한국노동연구원 고령화연구패널사업팀(2007),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사업현황”, Working Paper.
- Chao, E. L. and L. L. ORR(2002), “NLS Handbook 2002”, U.S Department of Labor & Bureau of Labor Statistics.
- Hsiao, Cheng(2003), *Analysis of Panel Data(2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siao, Cheng(2005), “Why Panel Data?”, IEPR(Institute of Economic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 부 록 >

1. 조사내용과 종단설계 사유

〈부표 2-1〉 패널 조사내용과 설계 이유

패널명	조사내용	패널조사 설계 이유
한국청소년 패널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직업 선택, 향후 진로설정, 진로준비, 여가, 일탈, 생활 영역별 시간배분 및 중요도, 자아관 및 스트레스 등 · 학부모(가구): 가족구성형태, 부모의 학력, 직업, 근로 형태, 가구소득, 사교육비, 주거형태 등 	<p>청소년 연령대의 성장과정에 따른 변화양상과 인과관계 파악을 통해 원인진단</p>
한국교육 종단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성취: 학생성취도검사(동등화된 검사), 학생 정의적 영역검사(자기주도 학습능력 검사), 담임 교사의 평가(학생전반에 대한 주관적 평가: 학교 생활, 학습태도, 수업태도, 포부수준, 교사의 기대 수준 등) · 학생배경: 학생질문지(가정생활, 학교생활, 학습활동, 여가활동, 자아개념, 포부수준, 만족도 등), 학부모 질문지(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자녀와의 상호 작용, 자녀에 대한 기대, 학교참여, 만족도 등) · 학교교육: 학교조사지(학교예산, 교육과정 운영과 편성), 학교장 질문지(학교장 배경 특성,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 교사, 학생, 학부모에 대한 인식 등), 교사 질문지(교사배경 특성, 수업방식, 수업내용, 학교, 학생, 동료교사에 대한 의견, 자아개념, 만족도), 교육통계 DB(학교의 기본 현황, 설립특성, 인구통계적 특성 등) 	<p>학교 교육 및 정책 효과 평가를 위해 동일 학생을 시간에 따라 반복 측정하는 설계가 필요</p>
한국교육 고용패널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생: 학교생활, 가정생활, 여가생활, 사교육, 재학중 근로경험, 진로계획, 진로지도, 자아관, 경제의식, 일반적 특성(건강, 음주, 흡연) · 대학생: 학교생활, 가정생활, 여가생활, 교육훈련, 재학중 근로, 진로계획, 경제의식, 일반적 특성 · 취업자/비진학자: 구직활동, 가정생활, 여가생활, 교육훈련, 직장경력, 진로계획, 경제의식, 일반적 특성, 현재취업상태, 현 일자리 특징, 취업의사 및 준비 · 가구: 보호자 관계, 경제활동상태, 가구소득 및 지출, 주거상황, 자산과 부채 	<p>청년층 인적자원의 현재 수준 및 축적과 활용 과정을 파악한 패널을 통해 인적자원개발 정책수립에 기여</p>

〈부표 2-1〉의 계속

패널명	조사내용	패널조사 설계 이유
청년패널 조사	· 학교생활(아르바이트), 주거상태, 가구소득, 학교 현황 및 학교생활, 사교육, 어학연수, 여가활동, 진로, 진로지도경험, 직업교육훈련, 자격증, 진로결정, 여성직업활동	청년들의 학교-노동 시장으로의 이행단계 및 이동과정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개발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 출신교과, 수능점수, 대학 평점 등 · 아르바이트, 사교육, 해외연수, 기타 동아리 등 대학생활 · 졸업 후 직장경험, 노동시장 이동(직업과 전공 관련성, 경력만족도, 경력 전망 등), 경력개발을 위한 노력 등 · 구직활동에 대한 질문 ·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증 · 혼인상태·군복무 등 인적 특성 및 부모님 관련 문항 등	특정연도 졸업생의 노동시장 진입과 정책, 경력개발 등의 정보를 얻기 위해 동일인의 장기적인 변화과약이 필요
여성인력 패널조사	· 여성관리자: 개인의 현 직장 근무사항(부서, 직위, 업무 등), 교육 및 직업훈련(학위과정, 직업훈련 등), 커리어개발 및 이동사항(본인의 커리어 관리, 직장 이동 등), 개인사항(가족사항, 혼인상태, 가치관 등) · 기업인사담당자: 기업의 일반현황, 인사관리제도, 인력운용현황	개인의 경험을 추적 조사하여 상이한 경력형성 과정을 파악
고령화연구 패널조사	· 인구: 학력, 배우자, 종교 · 가족: 자녀, 손자녀, 부모 및 형제자매 · 건강: 건강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간병수발자, 의료보장과 시설이용, 인지력 · 고용: 고용상태, 임금근로자, 4대 보험가입 및 복리후생, 구직활동 여부, 은퇴계획 및 활동 ·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회보장소득 · 자산: 거주형태, 거주주택 외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 주관적 기대감 및 삶의 만족도	은퇴 전후의 소득/소비 변화, 사회제도 및 정책변화가 개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 포착
장애인고용 패널조사	· 경제활동상태 판별 및 상태별 설문, 장애정보, 직업적 능력, 고용서비스, 직업능력개발, 직업경험 및 가치관, 일상생활과 삶의 질, 여성, 고령자, 가구일반사항	장애인의 장기간에 걸친 경제활동상태 및 직업상의 변화와 이동과정을 분석
한국아동 패널	· 신생아: 발달특성(조사방법이 구조화된 조사표를 이용한 설문조사가 아닌 검사 및 관찰을 이용하여 자료수집을 실시함) · 어머니: 개인특성, 양육특성, 가족특성, 대리양육 이용 특성, 해당가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특성 · 아버지: 개인특성, 양육특성	발달과정에서 경험하는 여러 요인에 대한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므로 동일 아동의 반복 추적조사가 중요

<부표 2-1>의 계속

패널명	조사내용	패널조사 설계 이유
인구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혼자: 출산 관련 태도, 정부 출산정책에 대한 수용도(반응도),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관련 항목 · 미혼자: 결혼 및 출산에 대한 태도 · 청소년: 결혼 및 출산에 대한 태도 형성 	출산에 대한 인식 형성과정이 출산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 파악
한국노동패널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용: 가구 소득, 소비, 자산, 부채, 사교육, 주거, 가구원 변동 등 · 개인용: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일자리 특성, 근로시간, 임금, 개인의 여가, 일자리만족도, 교육과 훈련 등 · 신규용: 개인용 설문지의 모든 내용을 포함함. 만 15세 이후의 이전 일자리 경력, 부모님 학력과 직업, 만 14세의 성장지, 종교, 출산력 등 개인용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조사 	노동이동, 경제활동상태이동, 소득이동 등의 분석과 여러 요인을 통제한 심층적 연구로 정확한 고용정책 수립
여성가족패널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결혼과 출산, 취업사향, 부부관계 · 2008년: 건강, 여가, 섹슈얼리티(가족관계, 가사노동, 자녀교육, 돌봄노동, 근로조건, 차별사향, 구직경로, 일 만족도) · 2009년: 교육 및 직업훈련(직장 및 가정생활, 개인 자산, 사회보험, 교육훈련, 미래설계, 사회보험, 개인특성)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상태 변화와 가족의 구조와 변동추세를 추적하여 구성하기 위함
한국복지패널조사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가구일반사향, 가계수지, 경제활동상태, 사회복지제도와 관련한 17개 영역으로 구성됨 · 가구원: 사회보험 가입여부, 근로활동, 의식 및 생활만족도 등 6개 영역으로 구성됨 	국민의 생애주기별 삶의 역동성과 육구의 변화 등을 동태적으로 분석 가능
한국의료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가구일반사향, 소득 및 자산, 의료이용, 의료비 지출, 민간보험 등 · 가구원: 경제활동, 건강상태, 사회적 연결망, 의료접근성 및 만족도 	건강상태에 따른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의 동태적인 변화 분석과 의료비 지출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과 원인분석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령자의 퇴직계획, 노후소득원, 고용, 지출·소득, 자산, 가족구조, 가족간 이전, 건강, 주거 등 · 가구: 가구원 인적사향, 주거현황, 가구지출현황, 기타가구원 소득 현황 · 개인: 현재 종사하는 일자리, 현재 일자리 직전의 근로경력, 현재 일자리의 퇴직금제도 및 정년제 적용 현황, 생애 근로경험 유무, 마지막 일자리, 마지막 일자리 직전의 근로경험, 현재 구직활동 여부, 은퇴 및 노후생활,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현황, 개인연금 가입 및 수급 현황, 건강보험 가입 현황, 소득 및 이전지출 현황, 자산 및 부채 현황, 상속 및 증여 현황, 가족관계, 삶의 만족도와 건강 	생애근로활동기간과 근로소득, 생애저축 등을 반복적으로 조사하여 변화과정을 추적 조사하는 동태적인 자료 필요

〈부표 2-1〉의 계속

패널명	조사내용	패널조사 설계 이유
사업체 패널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담당자: 사업장특성, 고용, 보상 및 평가, 인적자원관리, 작업조직, 인적자원개발, 기업복지 및 산업개해 · 노무담당자: 노사관계(노조, 노무부서, 교섭, 쟁의, 경영참여 등) · 노무대표: 노사관계(노조, 노사관계 역사, 노사협의회, 고충처리 등) 	고용이나 노사관계의 정책변화를 추적 조사함으로써 정책 효과 검증
인적자본 기업패널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조사: 경영일반(기본사항, 경영환경, 경영일반, 정보시스템), 인적자원관리(인적자원관리제도, HR부서, 채용, 평가, 승진 및 배치전환, 보상, 의사결정 참여, HR제도 사내홍보, 핵심인재, 인사정보시스템, 고용조정, 노조), 인력현황(인력구조현황, 채용인원 현황, 승진인원, 배치전환, 이직현황, HR조직 및 인원현황, 고용조정 규모), 인적자원개발(교육훈련실시, 투자액, 교육훈련(HRD) 조직, 교육훈련의 성과, 인터넷 학습기반, 학습조직, 인적자원개발(HRD) 현황, 자격)이 주요 내용 · 근로자조사: 기본정보, 현 직장 기본정보, 기업의 경쟁력 수준, 기업의 분야별 역량 수준, 인적자원개발 현황, 업무 분석, 팀(부서)원들에 대한 평가, 공정에 대한 평가(생산직에 한함), 근무시간, 임금 등으로 구성 	기업과 근로자의 인적자원 수준 및 축적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인적자원개발 정책 수립에 기여

2. 패널조사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표

패널조사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ID

안녕하십니까?

통계개발원은 국내 통계발전을 위해 설립된 통계청 소속 기관으로, 이번에 국내 패널조사의 현황분석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패널조사 방식의 조사설계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는 국내 패널조사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패널조사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운영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패널조사의 현황파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국가 중장기 통계개선행안안에 포함되어 있는 “패널조사 발전방안”과 관련해서 수행되는 것으로, 국내에서 공적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패널조사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며, 조사결과는 패널조사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자료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7년 10월

※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계청 통계개발원 사회통계실 이희길 사무관(042-717-0236, g851270@nso.go.kr)

※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철저히 비밀과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통계분석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작성자	■ 소속 기관명		■ 작성자 성명/직위	
관 련	■ 소속 부서		■ 직통 전화번호	☎

· ※ 조사표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

- 패널조사의 진행 단계 및 차수를 고려해서 응답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시 응답 공간을 확장, 응답양식을 변경해서 응답하셔도 됩니다.
- 계획 확정 단계인 조사의 경우, 계획에 대해서도 응답하시면 됩니다.
- 조사단위(개인, 가구, 사업체)에 따라 주의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 주제 복수패널은 동시 응답하되 각 패널에 대해 분리해서 응답)
- 2개 이상 조사 수행기관은 조사건별로 별도 작성합니다.

1. 운영 중인(혹은 운영계획이 확정된) 패널조사의 일반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번호	항 목	응 답	비고
1-1	조사명(영문병기, 약어)		
1-2	조사기관		
1-3	운영기관		
1-4	조사내용 관련 정부부처		
1-5	국가통계 승인여부	① 예(승인연도_____년) ②아니오	
1-5-1	(승인된 경우) 승인번호	승인번호 _____	
1-5-2	(승인되지 않은 경우) 향후 승인신청 예정여부	① 있음(예정연도_____년) ②없음	
1-6	벤치마킹 대상이 된 국내 외 주요 패널(복수응답)	국내패널명 _____ 해외패널명 _____	
1-6	조사계획 연도		
1-7	예비조사 연도		
1-8	최초 본조사 연도		
1-9	현재 진행된 조사차수		
1-10	조사완료 예정연도		
1-11	조사주기		

- 주 1) 동일주제 복수 패널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 구분해서 별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2) 운영계획이 확정된 경우, 응답가능한 항목에만 응답하시면 됩니다.
 3) 필요하시면 비고란을 통해 추가적인 응답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 운영 중인(혹은 운영계획이 확정된) 패널조사의 조사목적에 대한 질문입니다.**2-1. 패널조사의 목적을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2-2. 이 조사를 종단조사나 반복 종단조사가 아닌 패널조사 방식으로 설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2-3. 이 조사의 연구목적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정책 이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4-1. 차수에 따라 조사대상별 조사내용이 바뀐 경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조사내용 변경 내용

5. 패널 관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조사 차수 (wave)	원표본 유지율		완전응답률(always in) *한 차수도 빠지지 않고 모두 응답한 비율(조사단위 기준)	표본 탈락률
	조사단위	응답자 개인단위		
1차(응답률)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주 1) 1차년도는 표본의 응답률을 응답해 주시고, 2차년도부터는 1차년도 대비 원표본 유지율을 응답
 2) 조사단위가 개인인 경우 ‘조사단위’에만 응답하시고, 가족 및 사업체인 경우 ‘조사단위’와 함께 전체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개인단위’를 추가로 작성해 주십시오.
 3) 차수 특별 조사내용은 다른 차수에는 포함되지 않은 조사대상이나 첨가된 조사내용을 응답해 주세요.

5-1. 1차년도 응답률과 표본 대체는 어떻게 하였습니다습니까?

◎ 1차년도 응답률

◎ 1차년도 표본대체 방법

5-2. 1차년도 원표본과 가장 최근 조사를 기준으로 표본 소실사유와 탈락자의 특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소실사유별 비율

◎ 탈락자 특성

5-3. 1차년도 원표본 기준으로 표본소실로 인해 표본을 개편하거나 혹은 표본을 추가한 경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표본개편 내용(표본개편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

5-4. 패널 응답자 관리를 위해, 현재 활용되고 있는 방법 실시여부와 주기 및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자 관리방법	실시 여부	실시 주기 및 방법
① 소식지 제공여부	1. 실시 2. 미실시	
② 정기적 전화연락	1. 실시 2. 미실시	
③ 평소 응답자 친척 및 동료 연락처 파악	1. 실시 2. 미실시	
④ 이사시 주소파악	1. 실시 2. 미실시	
⑤ 생일축하 카드	1. 실시 2. 미실시	
⑥ 면접원 수기 제공	1. 실시 2. 미실시	
⑦ 조사분석 결과 제공	1. 실시 2. 미실시	
⑧ 응답자 온라인 커뮤니티	1. 실시 2. 미실시	
⑨ 면접원과 응답자 관계지원	1. 실시 2. 미실시	
⑩ 기타()	1. 실시 2. 미실시	

주 패널관리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 추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현장조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장조사 관련	응답
① 현장조사 진행주체	① 연구기관 ② 전문실사기관(기관명)
② 현장조사 방법 (복수응답 가능)	① 조사원면접(PAPI) ② 컴퓨터지원 면접조사(CAPI) ③ 우편조사 ④ 컴퓨터지원 전화조사(CATI) ⑤ 기타
③ 답례품 제공여부 및 내용	① 제공 (내용) ② 제공하지 않음

6-1. 패널조사 운영 관련 역할분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영역별로 역할 담당 기관을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내용	시험(예비)조사	wave 1	가장 최근 wave
패널 운영 기관			
패널 연구 진행 기관			
연구계획수립			
표본설계			
표본추출			
설문설계			
조사원 교육			
조사진행 및 관리			
자료입력 및 데이터 클리닝			
오차측정			
집계			
표본관리			

9. 패널 조사자료 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9-1. 패널 조사 결과물이 구체적인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으면 적시해 주십시오.

9-2. 패널 조사설계를 적용함으로써 기존에 횡단연구나 횡단 반복조사와 달리 관련분야에 기여한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9-3. 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작성된 논문(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으로 구분)과 보고서를 파악하고 계신대로 적어 주십시오.

구분	논 문					보고서
	학위논문			학술지논문	총 합계	
	석사	박사	소개			
논문편수						

9-4. 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작성된 논문(보고서 제외)에서 횡단분석이 아닌 종단적 자료 분석 방법을 활용해서 작성된 보고서의 수를 적어 주십시오.

종단분석을 실시한 논문수 _____ 편

9-5. 패널조사 원자료(raw data)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9-6. 자료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경로는 무엇입니까?

10. 패널 조사 운영과 관련된 인력 및 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10-1. 운영(계획 확정된) 패널조사의 예산을 차수별로 세부적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예비 조사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9차 년도	10차 년도
년도											
예산 총액											
인건비											
조사 비용											
기타											

10-2. 운영(계획 확정된) 패널조사의 예산의 성격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일반회계 ② 특별회계 ③ 기금(기금명: _____)

10-3. 운영(계획 확정된) 패널조사 관련 현재 인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명	학 령	전공분야	패널업무 참여도 (100% 기준)	정규직 여부	패널조사 관련 경력
			%		___년 ___월
			%		___년 ___월
			%		___년 ___월

- 주 1) 학력은 학부, 석사, 박사로 구분
 2) 업무 참여도는 패널조사 외 다른 업무가 없는 경우 100%.
 3) 정규직 여부는 정규직(고용보장 계약직 포함)과 비정규직으로 구분

10-4. 지금까지 해당 패널 운영 책임자의 교체가 몇 번 있었습니까?

- ① 없었음 ② 1번 ③ 2번 ④ 3번 이상

11. 마지막으로 국내 패널 조사 발전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11-1. 국내 패널조사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2. 국내 패널조사의 발전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개진해 주십시오.

♣ 비싼신 가운데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